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람 인(人)’의 형상을 통한
현대사회의 관계성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이 창 희

김 성 복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람 인(人)’의 형상을 통한
현대사회의 관계성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Study of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Form of Chinese Character ‘person’ (人)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이 창 희

‘사람 인(人)’의 형상을 통한
현대사회의 관계성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성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이창희


인 준 서


이창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김경숙 

심사위원..... 장옥희 

심사위원..... 박찬걸 

심사위원..... 김윤섭 

심사위원..... 김성복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작한 연구자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작업 주제인 ‘현대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과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성 및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제 의식과 작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작품에 내재된 주제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온 작품들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특히 작업에 나타난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은 한글의 ‘시옷(ㅅ)’과 한자의 ‘사람인(人)’ 그리고 알파벳 ‘엑스(X)’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중에 한자의 ‘사람인(人)’이 지닌 시각적 조형성과 그 형상에 내재된 의미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다른 관점은 외형의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사람인(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자의 작품과 연계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와 수많은 유기적 소통을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타인과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자존감을 회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공생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다른 구성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

들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또한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교류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더욱 객체화 혹은 개별화되는 특이성을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양상을 연구자의 ‘걷는 사람 형상’ 작품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과 이미지 그리고 관람객과의 소통방법으로 불안하고 소외된 현대인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대변해 표현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목 차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한자 ‘人’의 조형적 요소에 내포된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	7
1.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에 따른 인간관계	7
1-1.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의 구조와 특징	11
1-2. 공동체 속 현대인	15
2. 현대인의 소외(疏外)와 욕망	21
2-1. 불안의 개념과 이해	24
2-2. 나와 타자	36
3. 단순화시킨 사람 형상의 조형적 특성과 한자 ‘人’의 관계	52
3-1. 한자의 이미지화의 개념과 ‘人’ 차용	53
3-2. 한자 ‘人’의 조형적 특성	58
III. 선행 작가 제기	61
1. 삶을 표현한 조각: Alberto Giacometti	61
2. 사람, 사람, 사람: Julian Opie	67

3. 반복적 군상 : 고암 이응노	74
4. 인간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자 : Robert Indiana	79
IV.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조형적 특성 연구	86
1. 군중 심리	87
2. 함께 걸어가는 인간	96
3. 관계	105
V. 결론	114

참고문헌

ABCSTRACT(영문초록)

참고도판

참고도판 1) 자코메티, <서 있는 여자>, 135x15x36cm, 1947.	62
참고도판 2) 자코메티, <건고 있는 세 사람>, 72.5x42x42cm, 1948.	63
참고도판 3) 줄리안 오피, <Winter night2>, Aluminium nylon and light, 2021, 291.8x291.8x9cm.	69
참고도판 4) 줄리안 오피,<Nighttime 3.>, Continuous computer animation on LED screen, 2021, 175 x 200 cm.	69
참고도판 5) 줄리안 오피, 서울광장, <군중> 프로젝트, 서울, 2009.	70
참고도판 6) 이용노, <군상>, 한지에 먹, 167x266cm , 1986	75
참고도판 7) 이용노, <군상>, 한지에 먹, 130×70cm, 1988.	76
참고도판 8) The Electric EAT 1964/2007	80
참고도판 9) The Red Diamond Die(1962).	80
참고도판 10) ‘LOVE’ 1966.	81
참고도판 11) phillips 66 간판.	83
참고도판 12) phillips 66 간판.	83

작품도판

[도판 1] 이창희, <걸어가다>, bronze 2017, 33x10x27(h)cm.	65
[도판 2] 이창희, <걸어가다>, stainless steel, 2018, 70x30x5(h)cm.	66
[도판 3] 이창희, <걸어가다>, bronze, 2017, 가변설치.	72
[도판 4] 이창희, <걸어가다>, stainless steel, 2023 가변설치.	73
[도판 5] 이창희, <人-함께 가다>, 종이, 2021, 가변설치.	77
[도판 6] 이창희, <人-함께 가다>, 종이에 유화 2023, 30x50cm	85
[도판 7] 이창희, 걸어가다, 브론즈, 2017, 가변설치.	88
[도판 8] 이창희, <군중> 브론즈, 2017, 가변설치.	89
[도판 9] 이창희, <걸어가다>, 브론즈, 2017, 33x10x27cm.	91
[도판 10] 이창희, <걸어가다>, 브론즈, 2017, 33x20x36cm.	92
[도판 11] 이창희, <군중>, 브론즈, 2017, 50x50x5cm.	93
[도판 12] 이창희, <군중>, 브론즈, 2017, 100x100x5cm.	93
[도판 13]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70x30x5cm. ...	93
[도판 14]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70x30x5cm.	94
[도판 15]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50x60x5cm.	94
[도판 16]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50x50x5cm.	94
[도판 17]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30x30x5cm.	95
[도판 18]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60x50x5cm.	95
[도판 19]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7, 69x20x25cm.	97
[도판 20]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6, 250x560x250cm. 98	
[도판 21] 이창희, <人-함께 가다>, 종이, 2021, 가변설치.	99
[도판 22]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가변설치. 100	

[도판 23]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240x120x240cm.	101
[도판 24]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240x120x240cm.	101
[도판 25]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틸, 2021, 290x120x300cm.	102
[도판 26]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2, 가변설치.	103
[도판 27] 이창희, <人-함께 가다>, 고흥석, 2022, 420x220x260cm.	104
[도판 28]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특수도장, 2023, 420x199x159cm.	105
[도판 29]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특수도장, 2023, 130x40x120cm.	107
[도판 30]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특수도장, 2023, 190x130x230cm.	108
[도판 31]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실, 우레탄특수도장, 2023, 190x130x230cm.	109
[도판 32]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특수도장, 2023, 120x120x240cm.	110
[도판 33]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특수도장, 2023, 120x120x240cm.	111
[도판 34] 이창희, <人 · 관계>, 전시장 전경	112
[도판 35] 이창희, <人 · 관계>, 전시장 전경	113

참고표

[표 1] 인간관계에 대해 간략한 소시오그램	41
[표 2] 한자의 원리와 한자의 변화예시	56
[표 3] 한자의 원리와 한자의 변화예시	59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세분화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폭은 점차 확장되어가며,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 등 일차적 인간관계에서부터 직장 동료 그리고 연인과 친구 등 이차적 인간관계까지 더욱더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¹⁾ 따라서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관계의 강력한 영향력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인간을 상형문자인 한자로 표현하면 ‘人’이라고 하고, 서로 기대어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간이란 서로 돕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또한 인간(人間)이란 글에 내포되어있는 의미가 이미 ‘관계’의 의미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 1) 인간관계는 형성요인에 따라 일차적 관계와 이차적 관계로 나누어진다. 일차적 관계는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말하며, 이차적 인간관계는 개인적인 매력이나 직업적 이해관계 또는 가치의 공유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관계이다.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p. 40.
 - 2) 최애경,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인간관계의 이해와 실천』, 청람, 2006, p. 18.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S. Kierkegaard, 1813. 5. 5. ~ 1855. 11. 11.)³⁾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관계라는 말은 인간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뜻하는 것이다. 즉, 다른 타인과의 원만한 화합을 의미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⁴⁾ 또한 타인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수용과 성장을 촉진시키며 타인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이는 곧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는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또한 무엇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⁵⁾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규정하고,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내용과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성 및 표현방법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제 의식과 방향성을 밝히는 고찰의 한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 국가 등의 관계 안에서 ‘관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작품 제작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연구자 작품의 표현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6부터 현재까지 작업해온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시각적으로 주제적 상징을 극대화해온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작업에 나타난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은 한글의 ‘시옷(ㅅ)’과 한자의 ‘사람인(人)’, ‘알파벳의 ‘엑스(X)’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⁶⁾ 이 중에 한자의 ‘사람인(人)’이 지닌 시각적 조형성과 내재한 의미에 주목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른 관점은

3) 키에르케고르는(S. Kierkegaard, 1813.5.5. ~ 1855.11.11.),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이다.

4) 최승희, 김수옥,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박영사, 2013, p. 59.

5) 최애경,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인간관계의 이해와 실천』, 청람, 2006, p. 17.

6) 전시회소식, 이창희 개인전. (2021). <https://blog.naver.com/chunjin6625/222269266188>.

외형의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자의 작품과 연계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연구자의 작품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작품표현 방법을 확장시키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시대에 인간들이 서로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해석하고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와 그와 더불어 연구자의 작품과 연계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과 관계성을 작품을 통하여 증명해 보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업 분석에 앞서 연구자의 작품이 제작된 배경에 대해 다루어 기초적인 이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1-1.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의 구조와 특징’에서는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1-2 에서는 단절되고 고립되는 현대사회를 돌아보고 공동체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의 이론적 배경인 불안을 야기시키는 현시대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선행적 이해를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연구한다. 그중에서도 ‘키에르 키고르’의 불안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는 불안과 소외에 대해 파악하여 보며, 이에 더하여 ‘에히리 프롬의 ‘인간 소외’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들의 관계 맺기는 인간이 ‘삶’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변화 양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3절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회적 관계성’을 기호화된 ‘걷는 사람 형상’의 시리즈 작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자 ‘人’이 연구자 작품의 ‘걷는 사람 형상’이 지닌 시각적 조형성은 작품 속에 ‘사회 속 인간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자 하는 상징적 기호이자 시각 언어로 작품의 개념과 의미, 경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인간이 타인 또는 사회와 관계 맺기 위한 과정을 예술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내었는지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 1901- 1966)’, ‘줄리안 오피(Julian Opie : 1958-)’, ‘고암 이응노’,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 1928- 2018)’의 작업을 통하여 연구자의 작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본다. 특히 작업에 나타난 ‘걷는 사람’의 조형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작가의 작품과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외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시에 연구자 작품의 전시 형식과 설치 방법, 관람객과 만남 등을 감안하여 ‘걷는 사람’의 사회적 개념과 감상자들이 느끼는 ‘걸어간다’의 의미를 선행 작가 사례와 비교하였다.

제 V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등장한 연구자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작한 연구자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에서도 박사 졸업 작품 전으로 진행된 《人 ■ 관계》(2023.03.08.~2023.03.14.) 전시에 출품하였던 작품 위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내재된 주제적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온 작품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고찰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의 작품은 외형의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의 작품과 연

계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한다.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계’의 이미지와 결합된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난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그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립하고 ‘사람인(人)’의 형상을 통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향후 지속하고자 하는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자 ‘人’의 조형적 요소에 내포된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

1.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에 따른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뜻하는 대인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게 된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도움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지키는 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⁷⁾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수많은 상호작용들을 통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인간관계의 모습과 우리의 감정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정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구조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⁸⁾ 인간관계는 가족, 친구, 직장, 친척, 학교등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등 우리의 삶 속의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⁹⁾ 일찍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고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

7)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신정, 2014, p. 18. 참조.

8) 이태연, 위의 책, p. 18.

9) 이재열, 『인간관계론』, 북코리아, 2010, p. 23.

간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보여준다.¹⁰⁾ 인간은 출생에서 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 2011)는 인간의 행복은 연구자 혼자 찾거나 성취할 수 없고, 나와 가족, 나와 친구, 나와 직장 같은 관계, 즉 ‘사이(between)’ 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설명한다.¹¹⁾ 인간관계란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본이 되며,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이태연’의 <인간관계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의 유형을 ‘이태연’은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생존수단으로서의 관계 둘째, 기본적 욕구로서의 관계 마지막으로 사회화수단으로서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사회구조 상 수많은 사람이 뒤섞이고 영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타인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현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¹²⁾ 이렇듯 인간관계에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의미가 있다. 학문적 성취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능력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의 능력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회조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관계 능력은 일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되고 학습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많은 유형의 수학 문제를 알고 연습하면 잘 풀 수

10) 이태연, 위의 책, 참조.

11) 이태연, 위의 책, p. 16-17.

12) 이태연, 위의 책, p. 18.

있듯이 인간관계의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규범과 규율에 따라 타인과 상호 작용하며 그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¹⁴⁾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시작이 된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에게 보살핌과 무한한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된다. 최현석의 말에 따르면, “성인과 아이라는 심적 강자와 약자의 입장 아래서 부모님이 아이와 강력한 관계 맺기를 주도하고 있으나, 감정의 교류라는 관계의 본(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¹⁵⁾ 즉, 인간은 타인의 도움과 교류 없이는 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인 것이다.

이에 고대 그리스의 대표 희극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 (Aristophanes, 466~358B.C.)는 “인간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객관적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심리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연구자의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발달시킬지를 배워나간다.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며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인간의 성장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¹⁶⁾ 또한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생각들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태

13) 박은중, [장학지도]교직생활에서의 인간관계 형성과 직장 예절 탐구, 『주간교육신문』, 2013, 09, 10. <http://www.edu-week.com/news/view.asp?idx=3751>, 참조.

14) 이태연, 위의 책, pp. 18-20.

15) 최현석, 『인간의 모든 동기(우리는 어떤 행동을, 왜 하는가)』, 서해문집, 2014, p. 17.

16) 최현석, 위의 책, p. 17. 참조.

도 또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받아드려야 할 부분은 적절히 수용해야 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관계맺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현대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특성과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의 구조와 특징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던 변화를 단기간에 경험하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삶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과거보다 물질적인 삶의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지나친 사회의 급성장과 사람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며 인간관계의 본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¹⁷⁾

한국 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의해 가족 간의 결속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였다. 혈연, 지연 중심의 공동체 생활로 가족 중심의 농업 생활이 주된 생활형태였다. 전통 사회에서의 ‘이웃 간의 관계는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서로 간의 믿음을 기반으로 다져진 사회였다. 믿음 아래의 이해관계 속에서 유대감이 쌓이며, 굳건한 관계를 맺던 사회에서 오늘날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결과를 낳은 표면적 인간관계 맺기로의 변화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된 것일까?

자본주의 경제가 도입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증대시켰고 또한 질적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사회는 소통과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장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삭막한 디지털 네트워크 속 현대사회는 그동안 지속되어진 관계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의 순간으로 현대인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롭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을 넘

17)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정, 2021, p. 26.

어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해석된다.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개개인의 삶은 상호간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리적 고립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¹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러한 사회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인류가 겪는 고통과 불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에서 소외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어 가는 이유는 사회학이 지금까지 근대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⁹⁾ 근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시공간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분리된 존재이며, 이성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주체이다.²⁰⁾ 합리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현시대는 과거의 전 현대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학으로서는 소외나 외로움을 느낄 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²¹⁾

‘소외’라는 것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환경에 동화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집합적으로 ‘비인간화된 삶이 영위되는 상황’을 지칭한다.²²⁾ 동일한 환경에 당면하더라도 이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한 동일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이를 표출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 인간은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각박한 현실 속에서 타성의 흐름에 우리의 삶은 맡긴 채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8) 홍승표, 「동양사상과 새로운 소외론」, 사회사상과문화23권0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1, p. 223.

19) 홍승표, 위의 책, pp. 221-223.

20) 홍승표, 위의 책, 참조.

21) 홍승표, 위의 책, pp. 221-223. 참조.

22) 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 학보 제5권 제1호, p. 113.

오늘날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 매체들은 오히려 개인의 고립을 야기시키는 구체적 요인으로 자리매김한다.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rd’, 1929~2007)는 『실재의 종말』에서 “우리는 원근법적 공간과 판옵티콘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²³⁾ 원근법적 공간은 전능한 독재자적 시선을 나타내며,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이 말하는 ‘판옵티콘’²⁴⁾은 교화로 위장한 고립의 시작이기도 하다.²⁵⁾ 그러나 무한정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매체인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은 사람들로 부터 환영받는다.²⁶⁾ 현시대에 이르러 우리가 가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실제로 만나는 인간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간접적인 관계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키는 연결망인 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이버상에서의 간접적인 관계의 증대는 사용자 간의 인맥을 확장시켜주고 또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장점을 보이고 있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빨리’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의식과 제의 같은 서사적인 과정들은 정보와 소통의 순환과 흐름을 방해할 뿐이다.²⁷⁾ 그래서 편리함과 속도감 속에서 이러한 순환 속도를 저해시키는 것들은 배제되며 끝없이 생겨나는 새로운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간접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는 인간들은 오히려 전인격적인 만남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23)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pp. 52-53.

24)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을 판옵티콘이라 말한다. 판옵티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어로서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을 제안하고 창안한 것이다.”

25) 한병철, 위의 책, pp. 96-95.

26) 한병철, 위의 책, pp. 64-65.

27) 한병철, 위의 책, pp. 66-68.

우리는 모범적이며 외적으로 아름다운 척도에 의해 끝없이 판단되어지며 그러한 척도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한다. 익명의 디지털 압박 속에서 결국 그렇게 모두 같은 기계 속 부품처럼 대체 가능하게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모방과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흠잡을 것 없이 무난하게만 처신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속의 태도는 가상공간을 벗어난 현실세계 속에서도 이어진다. 물론 단순히 우리의 소통 부재가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달 때문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인 맥락은 모두가 함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끊임 없이 인간소외를 생성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토록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풍부한 소통의 장들이 도리어 개인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이유와 그들이 스스로 구축한 세계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보이는 것에만 가치가 부여되는 현시대 안에서 이제는 나, 그리고 타인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소통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공존의 질서를 확립하며 이해와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하며 창작을 통해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작업으로 구체화시켜 보려고 하였다.

1-2. 공동체 속 현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이 시작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들은 서로를 감지하고,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응답하게 되고, 때로는 서로가 자신을 내맡기며 ‘생생하게’ 자기 자신다운 관계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²⁸⁾ 공동체는 서로 우정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다.²⁹⁾ 공동체라는 범위안에서 타인과 지속히 관계를 맺어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현대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소통을 한다. 그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소통을 원해도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의사소통을 어려워한다. 이는 타인과의 대면의 접촉성의 결여를 중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인들의 교류와 소통에 대해 책을 쓴 저자 강현수는 “아무리 현대사회의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이 주는 매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³⁰⁾ 이렇듯 타인과의 만남에서 의사소통을 주고받음으로써 상대방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연한 만남이나 의도적인 만남 등이 있을 수도 있다. 관계는 만남에서 시작되

28) 이노우에 히데루, 박선환, 「관계와 인간의 삶」,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31권 11호, 2006. p. 294.

29) 강현수, 『도시, 소통과 교류의 장』, 삼성경제연구소, 2007, p. 107.

30) 강현수, 위의 책 p. 6.

며 만남 속에서 각자의 성향으로 느끼고 표현하며 받아들이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발전이 된다. 관계는 단순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다. 가족이라는 관계, 친구관계,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일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배우고 자라며 다른 관계들을 맺어 나가고 교육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나와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통해 공동체라는 개념을 배워나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와 또 다른 타인을 알게 되고 겪으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경험하게 된다. 타인으로부터 나와 다른 생각을 접하고 다른 행동을 보거나, 또는 교감을 하고 상대방을 알게 되며 ‘친구’라는 작은 공동체 또한 만들어 간다. 더불어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라는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리고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축적해 나간다. 이렇듯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어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현대에서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현대는 거대화되어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거대한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개개인의 역할은 점점 왜소해지며 개인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가치는 점점 미약해져만 간다. 이러한 개인은 거대한 조직사회 속에서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둘째, 현대사회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여유 없이 바쁘고 쫓겨 살아간

다. 타인에게 애정과 정성을 갖고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찾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은 잠재적이거나 실질적인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진실한 속마음을 나눌 수 없다.

셋째,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이다. 다원화된 사회는 각 사람마다 추구하는 사회정치적 신념, 생활양식, 가치관, 취미나 기호 등이 다양해져 사람들 간의 공유하는 지점은 감소하고 대립되는 갈등의 요소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관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자본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신적 가치는 경시되며 필연적으로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 지위 등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시간을 투자한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따뜻한 애정을 나누는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을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진정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어내기는 힘들어졌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연결망이 극도로 발전됐다. 전화, 인터넷, 화상 통화 등의 전자 통신 수단은 사람들 간의 접촉 양을 증가시켰지만 그러한 접촉의 질을 피상적으로 만들었다.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만큼,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속에서의 원격적이고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만남으로는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며 고독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고독이라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현대는 어느 시대 때보다도 인간관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³¹⁾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아미쉬(Amish)나 메노나이트(Mennonites)에게 ‘회피’는 중벌에 해당된다. 가족이라도 이러한 벌은 받는 사람은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보면 피하고 그 사람을 고립시킨다. 철저히 인간관계를 차단시키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때 패륜적 행위를 한 죄인에게는 관가에서 물고를 내며 어깨, 가슴, 다리 등에 경(鯨)자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가리켜 입 먹자 자(入墨刺字)라고 칭한다. 몸에 경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는 행위를 경을 친다고 지칭하며, 경침을 당한 사람은 집과 절연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³²⁾ 그야말로 그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목숨이 된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단절은 예부터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다.

카네기 기술연구소에 따르면 공학 기술과 개인기업의 약 15%는 기술적 지식으로 성공을 한다 생각했으며, 85%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도하는

31) Haim , 「인간관계론:인간관계의 개념, 의미,중요성 정리」, (엄마의 공부시간, 2022, 06. 09.),<https://blog.naver.com/hippystyle/222755043937>, 2023, 10, 14. 접속.

32) 양창삼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경문사, 1997, p. 30.

인간의 경영 기술에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공장에서 해고당한 20~40%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부족으로 해고당한다고 생각한 반면, 60~80%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미숙하여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하버드대학 직업보도국이 본교 졸업생 가운데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실직한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미숙하거나 좋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게된 사람들이 두 배나 더 되었다.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변화 가운데 우리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토플러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헤어짐과 만남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미래에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중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양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각각의 관계가 요구하는 법칙들을 터득하여 적응시켜 나가야 한다.

상호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만남’은 서로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실적인 것이어야 하며 특히 직장이라는 조직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크게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과 능률증진을 위한 생산 및 작업상의 만족 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결하여 목표 지향적인 협동체계를 확립하느냐는 근본적인 목적 때문에 아주 중요시되고 있다. 33)

최근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아시아(한국, 일본, 대만)의 기업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조직의 풍토가 지배적이라고 조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기업에서는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경영, 즉 인화의 경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는 일본보다 더욱 그러한

33) 양창삼, 위의 책, p. 17.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만족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보다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연구자는 이러한 근거로써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와 다른 타인과 소통하며 느낌 감정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과 쓸쓸함, 슬픔 그리고 공허함 등 다양한 감정들을 본인의 작품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시각화해보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시대의 사회적 배경이라 할수 있으며 현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연구자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 양창삼, 위의 책, p. 19.

2. 현대인의 소외(疏外)와 욕망

미셸 푸코(PaulMichelFoucault, 1926.10.15.~1984. 6.25)는 현대 사회에 대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권력의 의미 대신 통일된 실체나 중심이 없으며 다만 인간과 인간 그리고 집단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항상 파생되는 힘의 역학관계로 그것들을 규정한다. 또한 권력은 늘 일상 속에 그물망처럼 널리 퍼져있으면서 비가시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현대사회는 미시적 권력의 관점이 보다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기존 개념이 설명할 수 없던 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권력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침투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게 만들며 욕망을 추구하도록 이끌고 있다.³⁵⁾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작용에 대한 주체의 저항 문제는 더욱더 문제될 수밖에 없다. 억압이 주를 이룬 90년대의 과거 상황 속에서는 다원주의와 다양성이 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학의 부재로 인하여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로 빈번히 나아간다.

장 보드리야르(JeanBaudrillard, 1929.7.27.~2007.3.6.)는 현대시대의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라고 말하였다.³⁶⁾ 자극되는 소비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많은 이에게 해당되는 문제로서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소비함으로 이러한 의미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 가치가 아닌 의미를 지닌 기호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기호적 가치의 이미지는 우리

35)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p. 82.

36) 심준섭, 『장 보드리야르 이론과 소비문화의 관점을 통한 미술비평』, 한국기초조형학회, vol8, no.2, 2007, pp. 3-5.

가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욕망에 화합하는 감각적 대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현대사회는 실제 세계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세계이며 현대인들은 물질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욕망을 실현하고 충족하게 결코 가능하지만은 않다. 현실 원리 때문에 우리는 때로 목표나 대상을 잠시 포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이 쾌락을 포기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욕구는 요구를 통하여 요청하지만 그 욕구는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결여를 남긴다. 이렇게 슬프고 외롭다고 느끼는 결여는 욕구의 불충분과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한 멜랑콜리(melancholy-우울)를 나타내기도 한다.³⁷⁾ 결국 욕망의 대상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소망은 소멸되고 그로 인하여 인물들은 소외되며 내면적으로는 우울과 불안을 수반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첨단 문명의 발달의 대중적 확산으로 인해 인간대 인간의 접촉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중매체들이 그 자리를 메꿔가고 있다. 문화생활 역시 전통 방식인 활자 매체보다는 영상매체를 적극 도입하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시대를 바라보는 방식은 인간의 몸을 통한 사유와 인식이 아닌 비디오나 TV, 핸드폰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현실을 보고 있다.

결국 삶의 방식을 미디어가 재구축하며 영상의 이미지가 큰 위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디어 속 가상현실은 더욱더 진짜처럼 보여지며 결국 타자와의 소통의 단절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로 소통의 부재로부터 점차 폐쇄적인 상황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통에 대한 욕망 자체를 상실해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은둔하는 자아’의 자기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은 ‘더 깊이 은둔’ 하는 것이다.³⁸⁾ 즉 개인이 소외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개개인의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보급이라

37)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1』, 휴머니스트, 서울, 2003, p. 46.

38) 요시미 순야, (역)최종길, 『포스트 전후 사회』, 어문학사, 2013, p. 137.

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은 삶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적 세계의 현실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차 은둔하기 시작한다.³⁹⁾ 결국 그들은 자신의 껍데기 속에 숨어 버리게 되고 이러한 생태가 지속되면 극단적일 경우 자아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텅 빈 자신만 남게 된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경제적 풍요와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또한 미디어의 급격한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타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미시 권력의 영향에 더불어 문화 전반에 이른 욕망을 기반으로 한 과시 소비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해체와 부정,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이 상실되며 나타났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의 조건이 되어버린 미시 권력의 작용은 자본주의의 욕망을 조장하여 기호소비에 대해 더 이상 불합리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무의식적으로 상품 논리에 대해 욕망을 탐닉하며 동시에 욕망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아 좌절과 허무함을 경험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가상현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타자와의 소통에 대해 오직 욕망만을 충족시킬 뿐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진정한 소통을 잃어버리고 개개인을 더욱 고립되고 만다. 즉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로 자본의 권력이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권력으로 의식과 신체는 억압받는데 이렇게 억압된 신체와 내면의 무의식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39) 요시미순야, 위의 책, p. 133.

2-1. 불안의 개념과 이해

실존주의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는 키에르 케고르는 실존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려던 헤겔의 관념주의를 탈피하여 실존을 경험하며 생활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생성과정으로 보았다. 키에르 케고르에 따르면 실존주의에서 객관적인 실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을 통하여 인간은 세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다. 즉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유한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는 인간의 유한성의 기초가 된다. 키에르 케고르에 있어 불안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정신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정의되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 질환이기도 하다.⁴⁰⁾ 그는 불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불안, 도대체 알게 될 것 같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불안……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하여 인간은 누구나 정신의 병을 자신의 내부에 갖고 있다.”⁴¹⁾

불안은 공포나 두려움처럼 일정한 무엇을 가리키거나 대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연히 다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여 “인간에게는 동물이 느끼는 현재 처한 상태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인간과 같이 대상 자체는 없고,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없다”라는 것이다. 불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의 가능성

40) Kierkegaard, 박환덕 역, 『죽음에 이르는 병』, 서울:범우사, 1995, P. 39.

41) Kierkegaard, 위의 책, P. 39.

이며, 현실성이다.⁴²⁾ 즉 선택 가능성이 주어지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의 기원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 찾았는데, 아담을 통해 인간은 불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았다. 여기서 ‘가능성’의 징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신의 명령이 아담에게 불안을 일으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 안에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우기 때문이다.⁴³⁾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 열린 존재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에 있어 아직 이도 저도 아닌 무(無)의 상태라 볼 수 있다. 무앞에 놓인 실존적 상황은 불안을 낳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에 불안의 대상은 무인 것이다. 불안과 무는 언제나 서로 대응한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 가능성은 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무로 인하여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현대인이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갈등에 의하여 막연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안 중 하나인 공황장애(panic disorder)는 공황발작(panic attack)과 그것에 대한 공포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한 극도의 두려움을 동반한다.⁴⁵⁾ 이러한 불안은 신체적 심리적인 증상과 함께 엄습하여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며 죽음의 고통까지 느끼게 한다.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과는 다르게 불안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미래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감정으로 양면적이라 할 수 있다. 불안은 명확한 대상이 없고 극도의 위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더 나은 미래를

42) Kierkegaard, 임규정역, 『불안의 개념』, (서울: 한길사, 2002), P. 160.

43) Kierkegaard, 임규정역, 위의 책 P. 163.

44) Kierkegaard, 임규정역, 위의 책 P. 163.

45) 이현수, 이정은, 「공황장애환자와 비공황 불안장애환자의 심리특성비교-mmmpi와 로르샤하 반응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권 2호, 2009, p. 438.

향해 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불안한 개인은 스스로 이겨내도록 두려워하거나 개성이나 창의적인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통제될 수 없는 무의식의 사각지대를 거쳐가며 끊임없이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성을 획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원인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잠식당하거나 벗어나려고 할까?

현대인들은 부와 명예와 같은 자기 성취를 요구받으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외적 가치에서 찾고 가진 것들을 지키고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 무언가 소유하지 않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주체성이나 안정감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 경쟁 대상인 타자를 적대하며 공격한다. 경쟁에 내던져진 개별적 주체들은 서로 투쟁하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경쟁적 파괴’로 몰아가기까지 한다.⁴⁶⁾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불안’을 치료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자신이 가진 지위나 소유물 따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보아서도 안된다. 이러한 불안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에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⁴⁷⁾ 키에르케고르는 여러 저서에서 불안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내면적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인간성의 결핍과 현대인의 불안, 그리고 우울함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불안’의 개념을 인간 본성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⁴⁸⁾ 그는 불안은 “인간 본성의

46) 에리히 프롬, 고영복 역, 『소유냐 삶이냐』, 동서문화사, 2008, p. 388.

47)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389.

완전성에 대한 한 표현”이며, 불안을 극복해야만 존재의 본래 본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⁴⁹⁾ 그는 기독교의 원죄 의식에서 오는 죄책감을 불안의 근원으로 본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가능성의 무지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실존적 불안으로 인해 타락하며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선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인간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차원의 종합을 완성”하며, 이 종합을 수행하는 것은 정신이다.⁵⁰⁾

정신이란 자기(Selbst)이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관계(Verhältnis)”이다.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거나 관계 자체에 대한 관계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자신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그 자신과의 관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사람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종합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즉 “종합은 두 가지 사이의 관계로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 양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는 부정적인 결합으로서의 제삼자이다.”⁵¹⁾ 이 둘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 자기이다. 자기 자신과 그러한 관계, 즉 자신을 스스로 확립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립되어야 한다.⁵²⁾

즉 단독자는 단독자 스스로 자신과 신을 포함한 타인과의 정신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다양한

48) 최안 키에르케고어,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p. 147.

49) 최안 키에르케고어, 임춘갑 역, 위의 책, p. 147.

50) 아르네 그웬, 하선규역,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 도서출판 b, 2016, p. 44.

51) 아르네 그웬, 위의 책, p. 46. 참조.

52) “Søren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Rowohlt, München”, 1969, p. 13.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⁵³⁾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하여 나는 누구며, 나 자신이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단독자는 상반되는 두 개념, 유한성과 무한성 그리고 시간성과 영원성, 필연성과 우연, 나와 타자 사이에서 관계됨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깨지거나 불균형을 이루면 잘못된 관계의 상황에서 개인은 불안 안에서 침몰하게 되며 더 나아가 '절망'한다.⁵⁴⁾ 즉 불안은 본인을 더 잘 알기 바라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과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인생은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계속되는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러한 쉬지 않는 변화는 불안을 야기시킨다. 심지어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은 명확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스스로 과생하여 존재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인간의 본질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유와 반성을 통해서 생성되어지는데 삶의 주체로 살아가며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인식하며 타인과 서로를 인정하고 인류 전체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본래 자아를 재건하여 진정한 “selbst werden”이 될 수 있다.⁵⁵⁾ 많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여 성찰하고 반성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주변으로부터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반전시켜 나아간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성찰과 반성이 쉽지 않다. 이러

53) 최안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세창클레식, 세창출판사, 2020, p. 197.

54) 키에르케고르의 저작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은 절망으로 이것은 정신과 자기 안에서의 병”이라고 말한다. 절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며 선행되어야 한다.

55) 김종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사상과 자기 이해』, 엠-에드, 2002, p. 189. “selbst werden 스스로(자기)가 되다.”는 의미.

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기 됨'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은 단순히 지식을 얻었다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한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더 잘 알아가며 다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본다. 연구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나머지는 소홀히 하고, 불안으로 판단력을 잃고 사회의 일부로 전락하여 아무런 감흥도 없는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관계함'의 운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운동성은 끊임없이 실천하며 새롭게 깨달아 생성된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며 이 정신은 '관계에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즉 관계의 주요 대상이 그 사람 자신이라면 '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을 객체로 삼아 능동적으로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단순하게 하나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끊임없이 삶을 의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변화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⁵⁶⁾ 앞서 언급하였던 현대인과 사회의 문제 상황들은 어쩌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문제 상황에서 무한성과 유한성, 우연과 필연, 영원과 시간적인 것들의 관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유한성을 부정하며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 이때 자신의 내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자신의 환경과 멀어질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려 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56) 김종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사상과 자기 이해』, 엠-에드, 2002, pp. 120-123.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뢰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⁵⁷⁾ 이렇게 개개인의 내면에서 주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관계의 불균형, 관계의 깨짐 그리고 잘못된 관계와 같은 상황을 감지한다는 것은 내적 불안과 절망을 통감하는 것이다. 58) 불안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세상과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며 ‘관심’과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안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필연성을 인정하여 인간의 현실성을 찾음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 새롭게 참된 삶은 관계의 불균형을 반성하고, 비판하며 부정하는 데서 온다.⁵⁹⁾ ‘자기 된’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본연의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자신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특히 자신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의 타자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하게 참되고 올바른 자신이 될 수 있다.

박병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항상 불안한 존재로서 불안에 직면하는 가운데 불안을 넘어서는 존재이다”라고 한다.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 불안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⁶⁰⁾ 때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며 과거 경험에 대해 생각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불안에 대해 각자 다르게 느낀다는 점에서 상기시키고자 한다. 바쁜 현대인들이 깊은 사색을 통하여 진정으로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

57) 김종두, 위의 책 p. 122.

58) 김종두, 위의 책 p. 123.

59) 김종두, 위의 책 p. 135.

60) 박병준, 「불안과 철학상당- 불행을 넘어서는 ‘치유의 행복학’의 관점에서-」 철학논집, 제46집, 2016, pp. 9-29. 참조.

한 감정을 직면하고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불안이 야기하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얻는 도움 지지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두려움과 직면하고 의지를 통해서 불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연구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의 내면에 깊이 침투하여 연대와 소통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키에르 케고르는 동물은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물은 현재의 위협이나 위기에는 겁을 먹고 공포를 느끼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관계를 통한 다양한 기회와 선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⁶¹⁾

“사물의 존재에 대한 심판이나 어떠한 상태의 도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 현실적인 인간 존재의 특징을 말해 준다.” “삶은 단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생명(bios)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존재이며, 세상과 타인들과의 관계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걱정이며, 기대 그리고 계획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아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불연속성(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선택의 불연속성)과 충돌하는 연속성이다.” “존재는 절대적인 우연의 일치이다.” “존재는 선택(어떤 제한도 없는 자유로운 존재에게 요구하는) 이외에 다른 어떠한 필요성도 알지 못한다.”⁶²⁾

다시 짚어보면, 동물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는 있을지언정 불안은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과 지속해서 대면하게

61) 쇠얀 키에르케고어,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pp. 67-68.

62)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역, 『키에르케고르』, 동문사, 2004, p. 53.

된다는 것이다. 현재에 있어 이러한 가능성은 이도 저도 아닌, 무(無)이며, 이 무(無)의 상태, 이러한 알 수 없는 가능성 앞에서 걱정과 함께 불안이 발생한다.⁶³⁾

키에르 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 자유가 현실화된 것으로 자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경험이다.”⁶⁴⁾ 자유와 불안, 두 개념은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간의 내면성과 내면적 자기화를 상징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 가능한 자유의 가능성과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스스로 고지하고 있는 자유의 가능성은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압박해 오는 가능성이다.”⁶⁵⁾ 이는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것과 같다. 불안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별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선택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⁶⁶⁾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곧바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수한 가능성 앞에 놓이게 된다. 즉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때때로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고 의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⁶⁷⁾ 그러나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관계하고

63) 쇠얀 키에르케고어 위의 책, P. 163.

64) 쇠얀 키에르케고어 위의 책, p. 80.

65) 아르네 그웬, 하선규역,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 도서출판 b, 2016. p. 47.

66) 쇠얀 키에르케고어, 위의 책, P. 247.

67) 쇠얀 키에르케고어, 위의 책, P. 80.

상호작용한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거나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안감도 당연히 증폭된다. 인간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계속되는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의 종합으로 존재하며 자신과 타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데 능숙하지 않다.⁶⁸⁾ 또한 전망의 부재와 절망감이 결합한 사회적 불안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린다.⁶⁹⁾ 이는 때때로 인간들이 자유로움에 따른 모든 선택과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불안을 동시에 거부하려 한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개개인이 세상과 관계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불안의 개념』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은 곳에서 출발하는 무지로부터 오는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면 인간은 타락하고 만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지에서 오는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잘 성찰하여 진정한 불안과 대면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불안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불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안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 되고 우리 자신의 본래 성을 회복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논의는 불안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존재만으로 늘 불안을 안고 사는 인간은 자기실현과 자기 이해의 과정을 겪어내야만 한다. 인간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종합된 유기체라고 하지

68) 에리히 프롬, 원창화 역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1988, p. 79.

69) 한병철, 이재영(역), 『타자의 추방』, 문학과 지성사, 2017, p. 25.

만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는 유한성과 영속성을 망각함으로써 불안에 떨고 결국에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불안은 두려움처럼 명확한 대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라진다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막연하게 느끼는 것은 외면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막연한 불안감을 사회에서 얻는 성취감과 사회의 인정, 행복감 등으로 외면하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성취는 불안을 없애주기보다는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이며 결국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불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타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⁷⁰⁾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하려 하므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⁷¹⁾ 연구자는 불안 속에서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압박에 짓눌리며 자신이 아닌 타자 또는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허무해지고 고독해져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연구자는 관람객들에게 주체적 관계를 맺음에 대해 각성하고 돌아보게 하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하고 인간이 자연히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대면하며 하나의 독립되고 완성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타자와 새롭게 소통하고 관계 맺게 도움이 된다.

현대인의 자아상실과 불안 그리고 인간 소외의 문제는 개인의 각성만으

70) 한병철, 위의 책, p. 30.

71) 한병철, 위의 책, p. 30.

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구조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선 불안을 인간 존재의 근간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깊은 반성과 고민을 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며 어떻게 능동적으로 타인과 관계맺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2 나와 타자

현대인들은 왜 타인과 관계 맺기 없이는 사회에서 고립당한다 느끼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나와 타인의 관계’라는 지점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인간과 타인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왜 현대인은 “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해서 “왜 인간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로 발전하였다.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본고는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⁷²⁾)의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 인간관계이론의 바탕에서 인간성 상실, 인간소외 그리고 개인성격이라는 세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다.

첫 번째로 ‘인간성’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고유의 본질과 본성으로 정의한다.⁷³⁾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란,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화 교육을 앞둔 3~5세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초기에 가지는 본질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난다는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을 관점으로 보고 인간이 천성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자라면서 주변 환경과 사물

72) “에리히 프롬 (Erich Fromm, 1900-1980) 프랑크푸르트 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S.프로이드와 K.마르크스의 영향 하에서 출발한 프롬은, 파시즘의 선포에대중이 달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체험을 통해 ‘근대인간에게서의 자유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 그의 사색 활동의 전부를 바쳤다. 현대에 와서 일반화되어가는 신경증상이나 정신적 불안은 개인적인 정신분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학파에 프로이드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그 나름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이 3자의 역학에 의해 사회나 문화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즉 ‘인간주의적 정신분석’이다. 저서에 「자유로부터의도피」, 「인간의 자유」, 「건전한 사회」, 「선(禪)과 정신분석」, 「인간의 승리를 찾아서」, 「의혹과 행동」,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등이 있다.”

73) 두산대백과사전 두피디아. 검색어 : 인간성. <http://www.doopedia.co.kr>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앞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왜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재조명해 봐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현대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할수록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며 심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긴장한다는 것이 에히리 프롬의 분석이다.

현대인은 일하고 노력하지만 무력감을 느낀다. 물질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간은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 안에서 더욱더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연을 더 잘 제어하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도구들로부터 휘말리며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를 잊어버렸으며,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74) 편리한 세상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물질적 풍요는 얻었으나, 그 대신 자기 자신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에 대해 에히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haveorTobe)」에서 인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물질적 소유로서의 삶의 측면에만 집중하며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인간소외’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되었으며, 예술작품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어온 주제였었다. 소

74)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1995, 철학과 현실사, pp. 73-74.

외라는 단어는 본래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이 개념을 철학적인 특정 의미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상징하고 인간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⁷⁵⁾ 어원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라틴어인 ‘Alienatis’에서 유래된 소외(Alienation)라는 말은 이간, 분리, 소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회학적 의미로는 사회로부터 불개입의 감정, 소격 또는 명확한 의미나 규칙이 없는 사회규범의 무의미성과 규범 그리고 타인에 의해 분담된 가치 등을 특징으로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소외의 의미 속에는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즉, 분리되는 주체의 대상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으며, 자연과의 분리 또는 사회와의 분리, 집단과의 분리가 곧 소외이며 나아가 자아로부터의 인간소외에까지 그 내용은 점차 확장된다.

에히리 프롬이 말하는 ‘소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Analien)으로 느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원화(Estranged from himself)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든가, 또 자기 행동의 창조자로서 느끼는 것 대신,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행위들의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인간은 이것에 복종하게 되며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며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은 타인들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접촉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물이 되는 경험을 한다.⁷⁶⁾ “이 경험에는 일상적인 의미가 담기나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와의 어떠한 생산적인 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면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에히리 프롬은 말하고 있다. ⁷⁷⁾

75) 정문길. [소외론 연구], 1978,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7.

76) Erich Fromm.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 1981, 범우사, p. 301.

인간관계라는 본질로 돌아가 보자면 인간들의 관계 맺기는 기본적인 ‘삶’에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여진다. 옛 조상들의 품앗이를 예로 들어보면 자급자족으로 생활하던 시절에 서로 협동하며 농사를 지어 풍년이 드는 것이 먹고살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들이었으며 이러한 품앗이라는 행위는 상하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아닌 수평관계 즉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보태는 의리(義理)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순수하게 자신 인생의 만족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바라며 소유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공유하는 ‘함께’라는 공동의식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이’를 향해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데 관심이 치중되어 풍족해진 삶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소외감이 나타나는 이유라 에히리 프롬은 보고 있다. 78)

세 번째로 ‘사회성격과 개인 성격’에 관한 것을 알아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가장 인지도 있는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는 보여주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가 개인 안에서 어떠한 심리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에히리 프롬의 물음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에히리 프롬은 이 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성격 개념’을 사회에 적용시켰다.

프로이트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우리가 인식하든 모르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79)

77) Erich Fromm. 위의 책, p. 302.

78) Erich Fromm. 위의 책, p. 302.

반면에 프롬은 그 같은 힘이 우리 주변의 세계와 관계되기를 원하는 욕구에서 생겨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신의 성격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80)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고 들이는 많은 감정과 노력들은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에서 행동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활하고 지역 사회의 규칙과 방식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81) 즉 그 사회에는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심리구조’가 있어 사회가 잘 존재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에히리 프롬은 ‘사회성격’이라고 불렀다.82)

앞의 세 가지 이론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대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 아이콘인 SNS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나칠 수는 없다. SNS는 디지털 웹상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로써 IT의 발달로 얻어진 오늘날의 인간관계의 새로운 의미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편리함과 지식 정보 그리고 문화의 풍요와 함께 의사소통 수단조차도 다양해졌다. 인터넷, E-mail, 휴대전화 등 디지털 방식의 의사소통 수단은 점점 더 많아지고 발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83) 재택근무가 가능할 만큼 직접적이며 대면적인 인간관계는 점점 감소

79) Erich Fromm. 위의 책, pp. 301~304.

80) Erich Fromm.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 1981, 서울 : 삼성출판사, pp. 301~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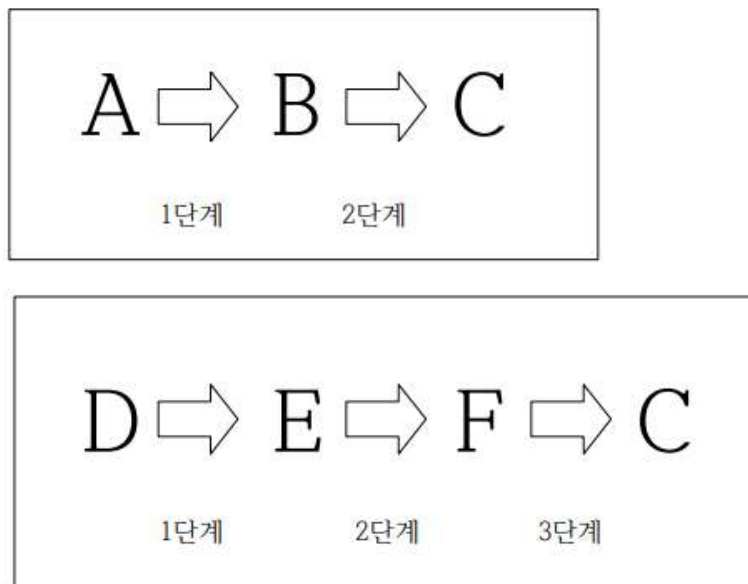
81) Rainer Funk. [내가 에리히 프롬에게 배운 것들 (Erich Fromms kleine Lebensschule)], 2008, 서울 : 갤리온, p. 111-112.

82) Rainer Funk. 상계서. p. 103.

83) 이성록. [사회적 인간의 본성], 미디어 숲, 2008, p. 85.

하며 전자 통신매체를 통한 가상공간 속에서의 원격적이고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증가해 가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 만남으로는 친밀하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찾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표면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케빈 베이컨의 여섯 단계 (Six degrees of Kevin Bacon)’ 이라 불리는 게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임의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20여 년 동안 50편의 영화를 찍으며 함께 출연한 배우와의 관계를 1단계로 했을 때 다른 헐리우드 배우와 연결되는 가장 짧은 단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근거하여 그와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을 이룰테면, 그의 인간관계에 대한 소시오그램을 통해 간략하게 나타내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표1] 인간관계에 대한 간략한 소시오그램

케빈 베이컨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듯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복잡하게 얽혀진 끝에 결과적으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정재승은 “잘 짜여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몇 가닥의 엉뚱한 연결이 이 거대한 사회를 몇 단계 만에 누구에게든 도달할 수 있는 ‘작은세상(SmallWorldNetwork)’으로 만들 수 있다.”⁸⁴⁾고 하였다. 하물며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SNS 등 예측할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무차별하게 연결되어 있는점에서 우리가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비록 발전된 기술이 때때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문제점을 가져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는 이유는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회적 생명을 더 강력히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⁸⁵⁾ 이는 동물에게는 없지만 사람만이 가진 것으로 모든 사회적 욕구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역할을 가진 것으로 사회적 욕구는 ‘자존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랑의 욕구’는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고받고 그들과 함께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다른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며 관계를 맺고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가고자 한다. 또한 자존의 욕구란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며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며, 사회집단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⁸⁶⁾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가상공간이나 현실 공간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유대관계에 있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도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회성격이 생겨나는 것을 찾

84) 정재승. [과학콘서트], 2001, 동아시야, p. 16-17.

85) 김태형. [불안 증폭사회], 2010, 위즈덤하우스, p. 27.

86) 김태형. 위의 책, p. 29.

아볼 수 있다.⁸⁷⁾

또한 현대 산업사회 정보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욕망들은 정보의 성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질적인 가치보다 효율적이며 표면적인 양적인 가치를 선택하길 강요하고 있다. 욕망을 자극하는 정보를 대면하는 존재마저도 자신의 욕망은 숨기지 않고 있다.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욕망하는 인간은 자신을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주체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실제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성찰 없이 살아간다. 한병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긍정성의 과잉이 부정성의 실종이라는 병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지적한다.⁸⁸⁾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의 현대인은 스스로 긍정적인 암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성과를 내며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우리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 속에서 실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외면하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한다. 자유롭게 사는 착각이 불러오는 자기 착취는 “타자에 의한 착취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용한다.⁸⁹⁾ 능동적으로 노동하며 경쟁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러한 것은 위장되어진 긍정적인 측면의 외적 기준에 의한 욕망일 뿐이다. 이러한 성과와 목전만 남은 외적 가치는 정신적인 것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요즘 사람들은 항상 일만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쉬고 즐기며 힐링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육체의 휴식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주체적 선택이 사라져 버린 상황은 “현대인의 내적 공허감이나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욕구 등에서 잘 나타났

87) 김태형. 위의 책, p. 29.

88)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p. 12.

89) 한병철, 김태환 역, 위의 책 p. 102.

다.” 90)

앞에서 제시한 현재 거론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자아 상실을 통하여 지속되며 이것은 다시 불안을 유발시킨다. 소유에 대한 욕구는 사람을 사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 항상 최고를 향한 경쟁에 지친 인간은 지치고 무한한 권태와 지루함 느끼며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해져 결국에 ‘소진 증후군’ 을 앓게 된다.⁹¹⁾ 인간은 소진 증후군으로 인한 탈진감과 무력한 상태를 느낄 때,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⁹²⁾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희망은 꿈꿀 수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들어간다. 게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현대인이 다른 사람 및 자신과 단절감이 느끼는 이유와 ‘소외된 자아’ 로 몰려가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 극복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외’ 라는 단어는 철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사회학에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단절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외란 인간이 스스로를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거나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체험하는 경험의 한 유형으로, 인간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와

90) 김용식, 「에리히 프롬 사랑의 교육적 의미 『소유냐 존재냐』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제36권 2호 (2016). p. 153.

91) 프로이덴버거가 <상담가들의 소진(Burnout of Staffs)>이라는 논문에서 상담전문가들이 약물 중독자들의 무기력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번아웃증후군’ 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burn out)라고 해서 ‘연소(燃燒) 증후군’ ‘소진(消盡) 증후군’ 이라고도 한다. (이동귀,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21세기북스, 2016. 참조.

92) 디이트리히 본회퍼, 『역사·소외·저항·혁명』, 형성사, 1982, p. 16.

타인에 의해 조작당하는 객체로의 근본적 분열에 그 원인이 있다.”⁹³⁾ 객체와 주체의 분열로 인간 소외는 비단 현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현시대로 오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한다. 현대에 와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외부로부터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다양한 잣대에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현대인들은 그것에 자진하여 복종하고 동조한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은 타인과 모여 있으면 스스로가 강력하고 강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끼고 위축되기 때문이다.⁹⁴⁾ 연대감이나 소속감과는 차이가 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인간은 점점 스스로에게서 소외되어져 간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은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을 내리는 행위의 주체자로서 경험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에 이끌려 주체성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게 된다. 즉, 개인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특정 방식에 자신을 완전히 맞추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기대하는 대로 돼버리는 것이다.⁹⁵⁾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를 뿐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아무런 마찰 없이 사회구조와 타인에게 흡수되는 존재’로 전락하며 사회가 기대하는 일을 하는 로봇과 같아질 뿐이다.⁹⁶⁾ 결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은 정체성을 잃고 방향과 뜻을 상실한 무력하고 고독한 존재가 된다. 개인의 특수함을 강조하며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는 현시대에서 결국 개인은 이러한 자유를 건디기 힘든 벽찬

93) 키에르케고어, 쇠렌, 임규정·송은재 역, 『주체적으로 되는 것』,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p. 60.

94) 디트리히 본회퍼, 위의 책, p. 10.

95) 라이너 폰크 외. 박규호 역,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영림카디널, 2003, p. 50.

96) 디트리히 본회퍼, 위의 책, p. 33.

짐으로 여기며 연구자의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스스로 소원해진 상태, 이러한 것을 에히리프롬의 심리학적인 소외이다. 개인은 외부의 대상 그리고 힘에 의존하며 복종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여 고립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질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 혹은 문화적 사회적 잣대들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이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이라는 생각을 회피하기도 한다. 자신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소외된 인간들은 타인과의 소통이나 외부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도 못하게 된다.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 무기력해진 현대인은 자신의 타고난 지적 잠재력이나 정서적인 것들을 발현해 내지 못하게 된다. 무기력해진 현대의 주체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된 선택 앞에서 굴복하며 진정한 자유도 포기해 버리고 스스로를 더욱더 소외시킨다.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고 좀 더 개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소외가 나타내는 현상들을 분석하며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제시한다. 1976년 발간한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소유와 존재의 양자택일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인의 존재 상실 문제에 대해 현시대의 시장 지향성으로 인한 것이라 보았다. 현대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늘 가지고 싶은 것으로 그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조차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홀로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 하며 이는 현대인의 존재 상실의 결과 중 하나로 보여진다.⁹⁷⁾ 인간 체험의 근본적 두 가지 형태로는 소유와 존재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양식은 사회적 성격의 방향, 인간의

97)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20.

성격마저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요하다.⁹⁸⁾

에히리 프롬은 ” 인간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거부할 수가 없다 “고 말한다⁹⁹⁾.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회와 관계 맺기 위하여 행위를 하며 사회화가 된다. 또한 그는 ” 사물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물을 소유해야만 한다 “라고 강조한다. ¹⁰⁰⁾ 소유란 무엇인가 손에 쥐고 이해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소유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상대를 마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태어나, 노력을 통하여 성과를 얻어내고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며 자신의 것을 갖게 되는 눈에 보여지는 삶의 실체를 소유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열광한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것을 소유하고 자랑함으로써 행복함을 느낀다. 하지만 소유하고 과시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스스로에게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 중요하게 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의 존재가치나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소유는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척도이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양식에서 우리는 소유의 ‘대상’ 이 아닌 소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이다.¹⁰¹⁾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하는 대상과 주체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대상을 소유할 수 있지만, 때로는 대상이 나를 소유할 수도 있다. 그 대상 자체가 나를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이 소유한다는 것에 의존해버리게 된다면 객체와 주체의 역할은 바뀌게 된다.

98)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p. 20-25. 참조.

99) 라이너 폰크, 김희상 역, 『내가 에리히 프롬에게 배운 것들』, 갤리온, 2008, p. 99.

100) 에리히 프롬, 『소유냐 삶이냐』, 위의 책, p. 25.

101) 라이너 폰크 외.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위의 책, p. 225.

에히리 프롬은 “존재는 대상을 바라보고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탐하지 않으며 그 관계에서 하나 되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때, 자신과 자신 주변의 세상은 대상과 주체로써 변화하며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며 어떤 재화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에히리 프롬은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나뉘가지며 관심을 함께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 “라고 한다.¹⁰²⁾

이는 물질의 양적인 소유가 아니라 삶을 고양시키고 변화하는 질적 소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의 성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존재 양식의 가장 주요점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 완전히 각성한 자유인으로서의 개성을 실현하는 자아 “가 되는 확장성과 능동성에 있다.¹⁰³⁾ 능동성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만의 틀 안에 고립되어 가는 것을 극복하게 한다. 또한 소유는 감소하거나 소비하여 사라져 버리는 반면 존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확장성을 보인다. 관계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도움을 준다.

소유와 존재, 두 가지 실존 양식은 한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 등을 결정한다. 물론 인간은 소유로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102) 에히리 프롬, 『소유냐 삶이냐』, 위의 책, p. 632.

103) 디트리히 본회퍼, 『역사·소외·저항·혁명』, 위의 책 p. 4.

수는 없다. 하지만 에히리 프롬은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치부되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¹⁰⁴⁾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는 자아상실과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의 상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유에 경도된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과도한 소유 욕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욕망을 전혀 배제한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행하고 소유하는데 있어서 얽매이고 구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¹⁰⁵⁾ 외부와의 관계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외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외부의 잣대가 일방적인 삶의 축이 되는 것과는 상이한 실존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객체와 주체의 관계가 영속성을 띠지 않고 항상 바뀌어질 가능성을 지니므로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고립되어진 상태는 본래의 자신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기 각성을 일깨우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존재의 독특한 조건에 상반되는 경향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모순된 노력’ 이 존재하고 있다.¹⁰⁶⁾

소유 양식에서 존재로서의 이행을 통하여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집중하며 존재하는 것, 항상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며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이 지닌 잠재력에 귀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정체성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시하지 않고도 스스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⁷⁾ 인간은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인식하며 그것은 이

104)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25.

105)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224.

106)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107.

107) 라이너 폰크 외, 위의 책 p. 231.

러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연구자는 예술과의 조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술을 통하여 언어로 형용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체득하며 타자의 존재를 이해하며 소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그 수행하는 역할들의 합이다.” 우리는 타인과 사회 그리고 자신 내부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살아간다.¹⁰⁸⁾ 즉 살아남기 위해 사회화되며 에히리 프롬 역시 사회의 성격과 개인의 성향을 관련지어 보고 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인간을 소유에 경도되고 자신의 자유와 불안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사회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스로 외부 세계와 결합하고 결속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완전성을 가지도록 자율적이며 생산적인 개인으로의 실현을 이루도록 해야만 한다.¹⁰⁹⁾ 개인의 성찰과 실현 같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연결하여 자아중심적인 사회현상들을 모두 극복해 낼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현대 주체가 가진 불안과 소외를 자신의 내면성으로 이해하며 인식하고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전통적 자유를 증진시키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믿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¹¹⁰⁾ 또한 소유에 지나치게 치우친 실존 양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 양식의 본질은 사유재산의 본질에서 유래된다.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타인을 배제한다

108) 라이너 폰크 외, 위의 책 p. 56.

109)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36.

110) 에리히 프롬, 위의 책, p. 37.

는 것까지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돌아본 결과 ‘타자와의 관계’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자의 작품 제작 동기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현대사회의 관계적 현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처음 생각의 시작은 ‘나’로부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시대의 40대 남성의 시각으로 확대되어 여러 분야의 작품과 문헌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론 조사들과 함께 생각의 과정이 발전되었으며 이내 관계를 나타내는 작품을 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양식을 찾으며 한자 ‘人’으로 형상화된 연구자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자의 이미지화의 개념과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 단순화시킨 사람 형상의 조형적 특성과 한자 ‘人’의 관계

인간은 한자로 人(사람인), 間(사이간)을 사용하며 서로 기대어 사회를 이루고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설명된다. 한자의 뜻처럼 인간이라는 단어는 관계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관계를 맺기 위해 항상 집단으로 함께 살아왔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관계로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¹¹⁾ 본 장에서는 현대사회 안에서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걷는 사람의 형상과 한자 사람인 ‘人’의 조형적 특성 그리고 ‘관계(關係)’를 통한 ‘人’으로 표현된 걸어가는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작업의 토대가 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人’과 걷는 사람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1) 송운석, 『인간관계의 이해』, 도서출판 학현사, 2003, p. 24.

3-1. 한자의 이미지화의 개념과 ‘人’ 차용

한자의 이미지화란, 글자 속에 담긴 새로운 이미지를 변화시키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 고유의 상형표의의 구성 특징을 전제로 문자의 구조(結構), 부건(副件), 편방(偏旁) 등의 내용의 변형이나 이미지화 또는 이미지의 대체를 통해서 만든 일련의 문자 조형예술을 말한다. 그 본질에는 한자의 예술적 미화와 변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방법에는 특정 예술 수단에 제한되지 않고 회화, 판화, 자수, 조각, 미디어까지 모든 시각 이미지 예술이 포함된다. 한자의 이미지화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모든 한자의 발전 중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아주 독특한 한자 전통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텍스트 조형예술로 볼 수 있는 한자의 이미지화는 그 심미적 가치로써 문자 의미에 기초하여 이미지 조형과 문자 조형의 예술적 결합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들은 관련 문자 정보나 시각요소에 대해 계획적이며 목적 있는 배열과 추출, 설계하는 활동 과정으로 보인다. 변형된 후의 문자 이미지와 기호를 활용하여 상응하는 내포된 의미 또는 특징을 전달함으로써 그 안에서 대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이미지화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 구조는 시각의 중심이 되었고, 이러한 시각적 전달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자 예술의 이미지화에 아름다움을 더해준다.¹¹²⁾ 이러한 문자와 이미지의 변화와 융합 방식의 근거는 단순한 교체와 결합, 중첩 등이 아니라 문자 구조와 그 속에 내포된 함의적 시각 표현이다. 한자의 이미지화 시킨 예술작품의 주요 형식은 문자 속 이미지의

112) 권석환, 「기운생동(氣運生動)과 그 예술 정신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15권 0호, 1997, pp. 293-294.

결합이나 융합, 교체 등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역할이 한자 이미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일반적인 문자 텍스트와 차별화되는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다.¹¹³⁾ 여기에서 ‘이미지’는 추상적인 이미지 역시 포함되며, 구상적인 복잡한 이미지 또한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형식으로 독립된 문자 구조에 보여지지만, 문자 자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화’ 되어진 변형에도 나타난다.

한자의 이미지화는 역사성과 사회성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문자 내용의 선택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선택과 형상화 과정에서도 구현된다. 창작에서 한자의 이미지화가 채택되는 이미지는 단지 심미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경과 생성연대 및 민속 문화등의 의식관념의 영향을 받아 과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창작자 개인의 심미와 관념의 단순한 구현이 아닌 사회 집단의 보편적인 의식 추구나 심미적 가치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궁중예술이나 순수미술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단지 어떠한 사회 계층의 종속이 아닌 사회 집단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자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문자는 정보를 기록하는 도구가 되며 그 기능적 속성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각 사회 계층에 넓게 분포되어 존재한다. 이는 한자의 이미지화의 민속화, 예술화의 생성에 전제 조건이 된다.

한자의 이미지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특별한 기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기호론 미학자 에른스 카시러러(Ernst Cassire)는 “어떠한 예술 이미지도 모두 특정 의미를 지닌 기호 또는 기호체계임이 틀림없으며, 일종의 기호언어이자 예술가의 독특한 사상 감정의 언어형식,” 이라고 말하였다.

113) 권석환, 위의 논문, p. 296.

114)

기호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약속된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사물의 형태를 보여주고, 우리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전체 현상이다.¹¹⁵⁾ 한자의 이미지화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호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나 이미지, 상태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물을 대체한다.

한자가 이미지와 아주 비슷한 이유는 한자의 특정 구성요소에서 비롯되었다. 《설문해자》는 한자의 규칙과 구성 즉, 상형(象形), 형성(形聲), 회의(會意), 지사(指事), 가차(假借), 전주(轉注)를 요약하고 종합하였다.¹¹⁶⁾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조자법(造字法)이고, 전주와 가차는 이후에 파생되어 발전한 문자의 사용 방식을 가리킨다.”¹¹⁷⁾

《說文解字·敘》에 따르면, 사람들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사물이 보이는 대로 형태를 따라 그렸기 때문에 “문(文)”(문의 본래의 뜻은 무늬, 도안이다)이라 불렀다. 이어서 형성자와 회의자를 만들어 문자 수를 더 많이 만들었으며, 이것을 자(字)라고 불렀다. “자(字)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서 많아지게 한다는 뜻이다.”(倉頡之初作書, 盖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后形聲相益, 即謂之字. 文者, 物象之本, 字者, 言孳乳而浸多也)¹¹⁸⁾

최초의 상형자는 ‘문’ 이고 ‘자’ 는 이러한 상형자에서 이후에 파생된

114) 진승, 에른스트 카시러 I : 인간론과 문화철학(An Essay on Man), 2024, 02, 16,

<https://m.blog.naver.com/yicheongho/223355584033>, 2024, 03, 13, 접속.

115) 박홍수, 《중국언어와 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p. 120.

116) 박홍수, 위의 책, p. 120.

117) 박홍수, 위의 책, p. 120.

118) 석담 김한희, 「설문해자.서(說文解字·敘)」, (김석담의 맑은샘 논어, 2022 .08. 06.),

<https://blog.naver.com/hanhyi/222841207110>, 2023, 12, 27, 접속.

것이다.¹¹⁹⁾ 상형문자는 실제 물체를 모사(摹寫)하여 사물의 형태를 직관적이며 소박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뚜렷한 기호성과 상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한자는 생성된 초기부터 그 수단과 형식이 모두 시각적 형식의 의거하여 표현되어 왔으며 그 본질은 시각적 형상에 표현된 사물과 맞닿으며 쓰고 새기는 방식으로 그려져 왔다. 그래서 한자를 예술적으로 조금만 다듬더라도 그림과 같은 예술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예술적 효과는 그 본질이 느낌과 상상에서 나오는 직관적 묘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차용한 갑골문의 ‘人’ 자는 한 사람을 측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닮았다. 이는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피며 노동하는 사람의 형상인데 지금의 ‘人’ 자는 여전히 단순하다. 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女人(여자), 男人(남자) 또는 老人(노인)처럼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킬 수 있을 만큼 두루 쓰인다.



[표2] 한자의 원리와 한자의 변화예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人(사람 인) (중국문화와 한자, 2013. 3. 28., 스딩귀, 뤼웨이둥, 이강재), 2023, 11, 23 접속.

문자는 말을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청각보다는 시각에 더 매력적이며, 구어와 달리 더 오래 전해질 수

119) 박홍수, 위의 책, p. 153.

있었다. 생성 초기 오래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단어를 타인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호로 바꾸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그 본질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¹²⁰⁾

모튼 헌트(Morton Hunt)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공간의 유사물이나 표상으로 사고한 뒤 언어로 사고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저장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마치 마음속에 투사되는 필름이나 테이프 같아서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마치 실제 그림 카드가 된 것 같다.” 라고 말했다.¹²¹⁾ 다시 말하여 인류가 사고하는 과정에서 상(像)은 말(言)보다 앞서며 ‘상’은 ‘말’의 기초가 된다. ‘상’은 곧 이미지이며, 이미지는 인간사고의 표현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문자조차도 이미지를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고 진화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이미지 언어는 내재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기에 다른 대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고유한 전달 효과를 발생시키며 감정과 사상을 상호 교류하게 만든다. 또한 문자와 언어는 소통하며 교류하는 매개체이며, 이미지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문자와 언어는 사상을 기록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미지는 형상을 반영하고 상황을 접하게 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평면 시각 범주 안에서 이미지와 문자는 각기 다른 형식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언어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며, 상부상조하여 교류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다채롭고 풍부한 정보의 경지를 구성하였다. 문자와 이미지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각기 고유의 특색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대체가 불가능하다.

120) 김영호, 이호익 「풍경의 질서로서 글씨,순수예술이 되는 지점」, 동서미술문화학회, 2012, p. 184.

121) Hunt, Morton , Profiles of Social Research The Scientific Study of Human Interac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Russell Sage Foundation, 1986, p. 164.

3-2. 한자 ‘人’의 조형적 특성

고대 중국 사람들은 한자의 독특한 모양과 기호를 잘 활용하여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자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더 쉽게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¹²²⁾ 한자와 이미지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 글자와 그림은 서로 상생하고 전환되지만 분명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구현된다.

첫 번째로는 한자의 이미지화로 문자의 필획이 적절히 배치되어 이미지의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며 ‘자형(字形)’은 가시화된 이미지 언어로 변환될 수 있다. 문자의 뜻은 의미 있는 이미지로 여겨지며 글자의 함축적인 뜻은 혁신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미지와 문자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정보를 보다 재미있고 빠르게 전달하며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독특한 느낌을 준다.¹²³⁾ 두 번째는 이미지 문자화로 만약 이미지를 문자의 영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문자에 녹아든 이미지의 외형이 둘의 유기적인 결합을 보여주며 문자의 속성을 더욱더 강조시킬 수 있다. 글자와 그림의 의미 전환은 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은 없다.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는 문자에 이미지의 의미가 의존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미지에 문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은 확장성과 심오함 그리고 가변성의 해석이 부족하게 된다.¹²⁴⁾ 그러므로 글자와 그림은 차이가 있으면서 또 긴밀히 연결되어진다.

122) 박홍수, 위의 책, p. 131.

123) 정경숙, 「1950년대 이후 한중일 문자예술 비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2, p. 33.

124) 정경숙 위의 논문, p. 103.

연구자 연구자의 작품의 토대가 된 한자 사람인 ‘人’은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이다. 사람인 ‘人’은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며, 사물의 원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떠 그린 것으로 형체상 가감 없이 비교적 식별하기 쉬운 독체 상형문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사람인 ‘人’을 보면 팔을 지긋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여진다. 소전에서는 팔이 좀 더 늘어진 모습으로 변화하다가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¹²⁵⁾ 이처럼 사람인 ‘人’은 사람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쓰일 때에는 주로 사람의 신체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성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人’은 다른 한자에도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어져왔다. 예를 들면 쉴 휴 ‘休’ 사람인 ‘人’과 나무 목 ‘木’이 결합된 모습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표25] 한자의 원리와 한자의 변화예시.

출처 [한자로드(路)] 신동윤, (삽화) 변아롱, 박혜현, [네이버 지식백과] 人(사람 인) (중국문화와 한자, 2013. 3. 28., 스딩귀, 튀웨이둥, 이강재), 2023, 11, 23 접속,

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신선 선 ‘仙’은 사람인 ‘人’과 뫼 산 ‘山’이 결합한 것으로 신선

125) 락이망우, 「근본한자290」, (웃음이 넘치는 글방, 2021 .03. 17.), <https://blog.naver.com/havfun48/222278601130>, 2023, 11, 04. 접속.

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예부터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라 생각하였기에 옛 선조들은 이러한 텍스트에 신선이라는 의미를 내포시켰다. 연구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사람인 ‘人’의 형상이 작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 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Gustave Le Bon)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생각하는지 집단의 상상력을 연구하며 집단은 그들이 보고 듣는 인상의 영향에 쉽게 동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특정 단어와 문구, 상투어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 집단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잘만 활용한다면 집단의 상상력은 신비한 힘을 가질 수 있고, 마치 ‘마법의 신’의 도움을 받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¹²⁶⁾ 이것으로 볼 때, 단어의 영향력과 힘,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이미지와 연관이 깊으며 때때로 단어 자체의 의미의 범주를 넘어선다.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단어와 관련된 더 많은 함의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나 스위치와도 같다. 앞서 말했듯 한자는 언어 기호로서 다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틀에 박힌 듯한 내용이 아닌 중국과 한국 전통문화와 풍속에 기반한 방대한 역사라 할 수 있다. 특수한 생성 원리와 이미지에서 한자는 서서히 변천되어 왔다는 특징 때문에 이미지와 같은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문자에 내포된 의미와 확장된 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문의 이미지화의 생성 목적은 결국 문자 자체의 내포된 의미에 대한 사회 문화 콘텐츠의 시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126) Gustave Le Bon, 강주현 옮김, 『군중심리』, 현대지성, 2021, p. 94.

Ⅲ. 선행 작가 제기

1. 삶을 표현한 조각: Alberto Giacometti

근현대 조각사에서 독창적 표현방식으로 연구자의 작품 세계를 이끌어 온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 1901- 1966)는 스위스 보르고노 보라는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예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지오반니 자코메티(Giovanni Giacometti)는 밝은 색채를 이용한 신 인상주의, 상징주의 및 야수파 계열의 화가였었다. 또한 그는 미술가 집안의 가정환경과 산골마을이라는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어릴 적부터 조형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코메티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작업실을 내주었으며, 당시 선구적인 예술가였던 그는 아들에게 최초의 스승이었다. 이와 같이 자코메티의 삶에서 그의 가정환경은 일찍부터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존재의 무게감을 덜어 내고 길고 가늘린 표현방식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그의 표현은 그의 작품과 공간의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그가 겪었던 공포와 혼란스러운 환경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은 자코메티에게 절대적 가치의 상실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것은 그의 조각이 뼈대만 남긴 채 공간 속으로 결국에는 흩어져 사라질 것만 같은 독창적인 형상으로 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길고 가늘어진 형상, 불안과 공포, 고독으로 점철된 인체 조각상은 가벼운 실체를 보여주듯 엇가락처럼 길게 늘어져서 지시(指示)하듯 표현된다. 이러한 형상의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친구의 죽음으로 생명에 대한 소외

감, 인간성 상실, 무상함이라는 과정을 거쳐,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의 세계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다.¹²⁷⁾



[참고도판1] 자코메티-서 있는 여자 1954

[참고도판1]의 <서 있는 여자>는 길쭉한 형상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 대하여 할 포스터(Hal Foster, 1955-)에 의하면 자코메티는 “나는 생명체, 그중 무엇보다도 사람의 머리 앞에 서면 그 생명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기(氣)가 파고들어 이 양자가 하나가 되어 버린 듯함을 때때로 느낀다. 자코메티는 그의 작품을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서든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냈다.”¹²⁸⁾ 라고 하였다. 이렇듯 그의 조각에는 원근법보다는 내적 공간을

127) David sylvester, Looking at Giacometti, Owl Books, 1977, p. 128.

128) 할 포스터, 배수희, 신정훈역 『19세기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12, p. 231.

통한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4년 <카이에 다르> 라는 미술잡지에는 그의 작품에 대하여 “그에게는 아무리 작은 조각상도 엄청난 크기의 작품이었다. 그 작은 상이 주변의 모든 공간을 흡수하면서 보는 이에게 자신의 크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¹²⁹⁾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상과 질감 그리고 높은 밀도감으로 인해 공간을 지배하는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도판2] 자코메티, <걸고 있는 세 사람>, 72.5x42x42cm, 1948

샤르트르 (Jean Paul Sartre, 1905-1980)은 걸고 있는 세 사람[참고도판2]에 대해 “ 하나의 상호 주관적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로

129) 베로니크 와이싱어, 『자코메티-도전적인 조각상』, 시공사, 2010,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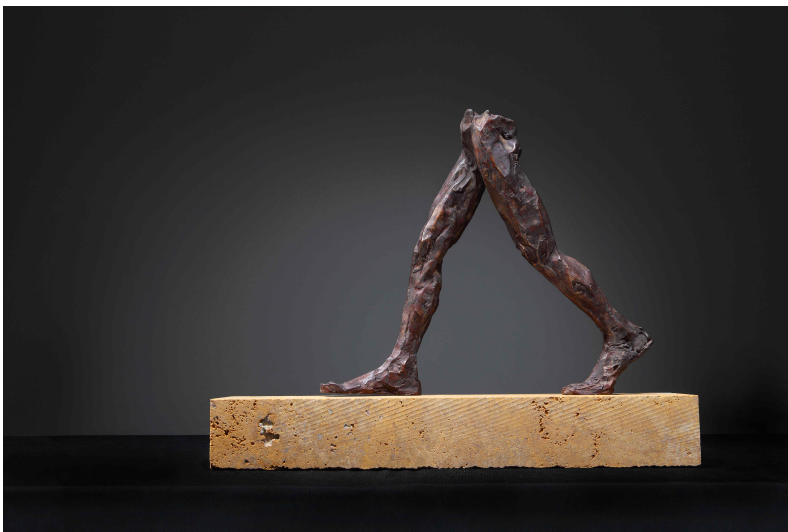
나타나는 인간을 보여준다. 인간은 미리 존재해서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 실존하는 본질을 지닌 존재다.”¹³⁰⁾ 또한 “자코메티의 형상들은 비존재로 거친 표면들 사이를 함수로 만들었다.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돌출된 가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세부나 모양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비존재가 지각을 유도하게끔 만든다.”¹³¹⁾라고 주장한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그가 겪어온 현실의 세계, 실존과 허무, 소외를 그대로 형상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과 같은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예술은 전쟁을 기점으로 자신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꿈과 우연에 초점이 맞춰진 초현실주의적 태도와 가늘고 긴 왜곡된 형태를 통한 인간의 소외와 존재를 탐구하는 가느다란 데포르메적인 형상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자코메티의 실존의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본질을 통하여 덜어내는 방법으로 인간소외를 나타내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자코메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많은 피해와 상처를 안겨주는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고, 파괴되고 황폐해진 현실에서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 죽음과 고통을 조각으로 형상화하였다. ‘걷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 ‘걸어가다’ 또한 자코메티가 고민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했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큰 전쟁 전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슬픔과 상처를 느끼는지 보여준다. 그의 걷는 사람들의 조각은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

130) 할 포스터, 배수희, 신정훈역, 『19세기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12, p. 461.

131) 앞의 책 p. 461.

복과 자유를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걸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예술로써 보여준다.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며 상처받았는지 다양하게 겪는 트라우마의 실체를 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 또한 걷기를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공간, 경험, 자신의 존재방식 그리고 세계 등을 ‘인간관계’라는 측면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재탐색해 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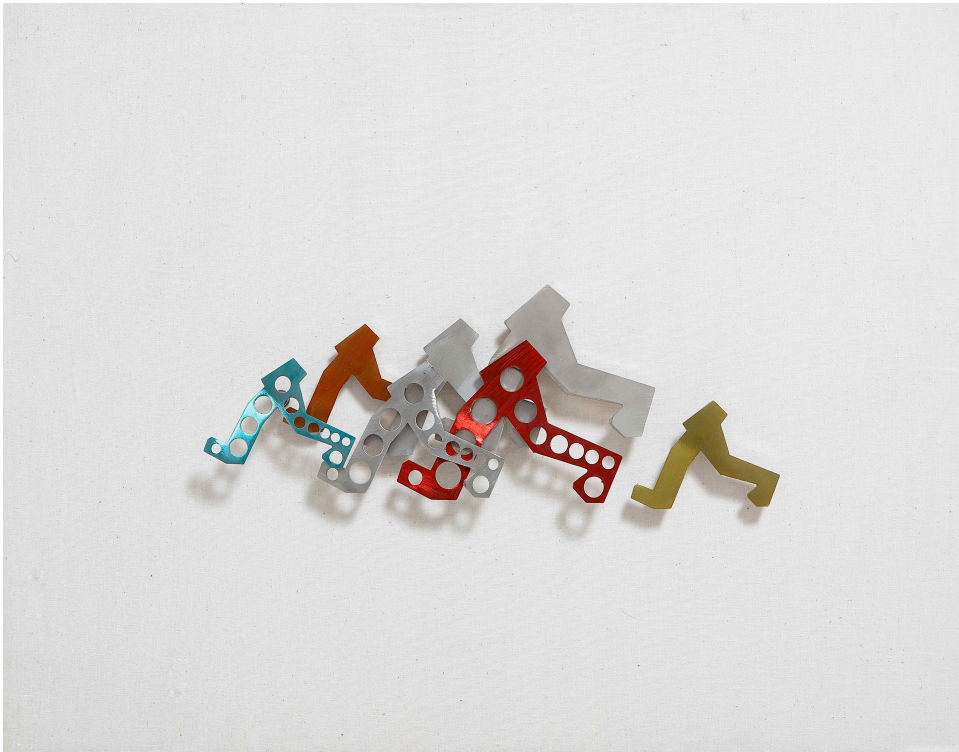


[도판1] 걸어가다 330x100x270(h)mm , bronze, 2017.

또한 연구자는 우울하고 소외되어가는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관계를 맺어가는 주체가 인간이며 작품을 조형화시키는 것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이러한 각기 다른 관계 형성 방법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작품들은 자코메티와는 또 다르게 '소통'과 '관계'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작품에 내포하고 있다.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관계하는 방법은 인간 삶의 경험치만큼 다양하다는 생각

으로 작품을 조형화함에 있어 한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해체와 조합 설치 등이 자유롭게 작업하였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소통'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으며, 단위체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 조형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도판2]towalk to place (걸어가다)70x30x5(h)cm, stainless steel 2018

2. 사람, 사람, 사람: Julian Opie

줄리안 오피는 195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옥스퍼드에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많이 배출한 골드스미스 대학교 (Goldsmith School of Art)에서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Michael Craig-Martin)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골드스미스에서 수학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데미안 허스트를 중심으로 한 YBA¹³²⁾ 작가와 함께 분류할 수 있지만 그보다 시기가 조금 앞선 작가로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주제와 재료 그리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YBA 그룹과는 구별된다.

그의 작업은 주로 인물을 다루는데 고전적인 초상화의 형식 또는 일상적 이미지 혹은 움직임의 단순화하고 차용하여 표현한다. 또한 각 인물에서 최소한의 특징만을 남기고 단순화시키며 모든 것을 간결한 선으로만 표현한다. 그의 작업은 실제 대상을 그리거나 만들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하는데 머리를 동그라미로 표현하여 현대인의 모습을 하나의 모듈로 기호화 시킨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의 시각 표현방식에서 사회구조 속에서 현대인의 익명성을 읽어낼 수 있으며 대상의 이름과 직업 등을 그대로 작품 제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품에 나타난 기호적 인상은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지각 패턴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피가 그의 작품 속에서 추구하는 단순함은 아주

132) YBA는 Young British Artists의 약자로 1980년대 후반에 유명해진 영국의 젊은 예술가들의 그룹이다. 가장 잘 알려진 YBA 아티스트 중 한 명인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Freeze'라는 전시회를 통해 유명해졌다. 아직 학교를 다니던 젊은 작가들이 런던 도클랜드(Dockland) 지역의 빌딩의 빈 창고를 무료로 빌려 전시회를 열었다. 준비한 '프리즈'라는 미술 전시회는 yBa 탄생의 기원이 되었다. YBA 군단으로 유명한 예술가로는 사라 루카스 (Sara Lucas),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게리 훔(Gary Hume), 마크 퀸(Marc Quinn), 체프먼 형제(Hake and dinos Chapman),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등 현대미술의 주역들이 있다. -두산백과참조.-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정보와 충동적인 감각적 자극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작업에 적용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각 기호와 비슷한 모습으로 축약된다. 화장실을 표시하는 동그라미와 삼각형처럼 말이다.¹³³⁾ 특유의 움직임이 느껴지게 하는 오피의 경쾌한 인물화는 각각의 다른 얼굴과 다른 체형들의 인물의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도시 또는 장소가 드러나는 의상이나 소지품, 몸짓에서 도시 사람들의 경험을 추측할 수 있게 표현된다.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관람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스스로 떠올려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오피의 작품은 낮인지 밤인지 시간대를 고려하고 걷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사진을 찍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도시를 걷어가는 사람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공감을 안겨준다.

[참고도판3] <겨울 밤 (Winter night2)>, [참고도판4] <밤 (Nighttime3)>은 도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작업실은 런던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겨울옷으로 무장한 채 길을 걸어 다니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고 그들의 모습을 LED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들어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의상이나 소지품 그리고 피부색에서는 도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드러난다. 더군다나 잘 알려진 기존의 선명한 원색이 아닌 톤 다운되어진 차분한 색감은 작품의 바탕이 되는 검은색과 흰색에 어우러져서 그 계절만의 정취를 한껏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어두운 배경에 줄리안 오피의 그림에 빛이 투과되면 선의 색이 더욱 부각된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각각의 특징을 포

133) 임근혜, 『창조의 제국 영국현대미술의 센세이션』, 지안출판사, 서울, 2009, p. 207.

착하고 그리는데 능숙하며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의 예술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왔다.



[참고도판3] 줄리안 오피, <Winter night2>, Aluminium nylon and light, 291.8x291.8x9cm, 2021.



[참고도판4] 줄리안 오피, <Nighttime 3.>, Continuous computer animation on LED screen, 175 x 200 cm, 2021.

그의 예술작품 속 인물들은 ‘걷기’ 등 일상적인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형상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었던 행위들이 예술로 탈바꿈된다.¹³⁴⁾ 그의 작품에서 단순한 모양과 선으로만 완성된 도시 사람들의 이미지는 경쾌하며 당당하다. 현대의 생동과 기운이 느껴지며 도시를 이동하는 강한 현대인의 강한 움직임도 보인다.

그의 작품은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사람과 동물 그리고 건물 등 일상적인 주제를 회화와 조각, 여러 매체와 기술로 대상을 다양하게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관람자들은 픽토그램처럼 익숙한 형태로 나타내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떠올리며 지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서 현시대의 사람들의 일상 또한 들여다볼 수 있다.



[참고도판5] 줄리안 오피, 서울광장, 군중 프로젝트, 서울, 2009.

<군중(Crowd)>[참고도판5]은 서울역 맞은 편 서울 스퀘어는 정면 전체를 LED 미디어 파사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설치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

134) 국제갤러리, ‘Julian Opie 개인전’ 서문, 2021. 10. 7.-2021. 11. 28, p. 2.

피의 걸어가는 도시 사람들이 서울 스퀘어 앞을 캔버스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이한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을 보면서 오가는 사람, 등 익명의 모습을 담았는데 2009년 첫 상영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다.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과 서울역이라는 장소성을 읊긴 탓에 공감도 역시 높았다. 언론에서는 “미술에 기술적 메커니즘을 접목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그들의 삶에 직접 연관된 이슈에 관해 대화를 시도한 ‘군중’은 단순한 내용과는 달리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도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인간 삶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¹³⁵⁾라고 평가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살펴본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비언어인 몸짓들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사람의 행동이나 몸짓은 텍스트처럼 장소나 공간에서 생기는 만남이나 헤어짐, 슬픔, 이별 등 정서적 감정들이 드러나고 읽혀진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대상의 감정은 인간의 제스처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정서적 감정은 사라지고 남겨진 사소한 기억에 의해 가시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몸짓을 통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달되고 텍스트가 되어 읽혀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옷, 사물을 보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시각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몸짓과 움직임은 개인의 감정과 심리상태가 타인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돌아다니고 이동할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움직임과 몸짓이 촉발된다. 사람들은 물리적 이동을 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한다. 오퍼의 작업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표

135) 이수완, “이수완의 공공미술 산책: 줄리안 오퍼 <군중>”, 대한경제, 2020. 04. 0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4081713105790710>

현되지만 관객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



[도판3] 걸어가다 가변설치 , bronze, 2017.

도시의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서로를 기억할까? 본 연구자는 인간이 각각 관계 맺기에 따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길이 각기 다른 것처럼, 함께 배치되는 작품의 방식에 따라 그 의미와 느낌 역시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 한 단위체의 단순한 해체와 배열이 아닌 단위체 각각의 의미를 담아,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작품의 형태만큼이나 공간의 활용, 그리고 작품의 설치에 중점을 두었다. 오피의 단순한 인물화는 모두 똑 같아 보일수 있는 익명성의 시대에 각각의 사람의 개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그 개성이 다른 이에게 어떤 식으로 각인되는지 보여준다. 때로 걸으려는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일 이 실제로 이면에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믿음은, 줄리안 오피

를 알고 나서 더 확고해졌고, 또렷한 윤곽선, 디테일이 생략된 이목구비로 표현되는 그의 인물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이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보는 이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기억되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방식의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험한 기억의 만남과 시각적 경험 그리고 새로운 조각의 가능성으로 선행되어 연구하였다.



[도판4] 걸어가다 가변설치, stainless steel 2021,

3. 반복적 군상 : 고암 이용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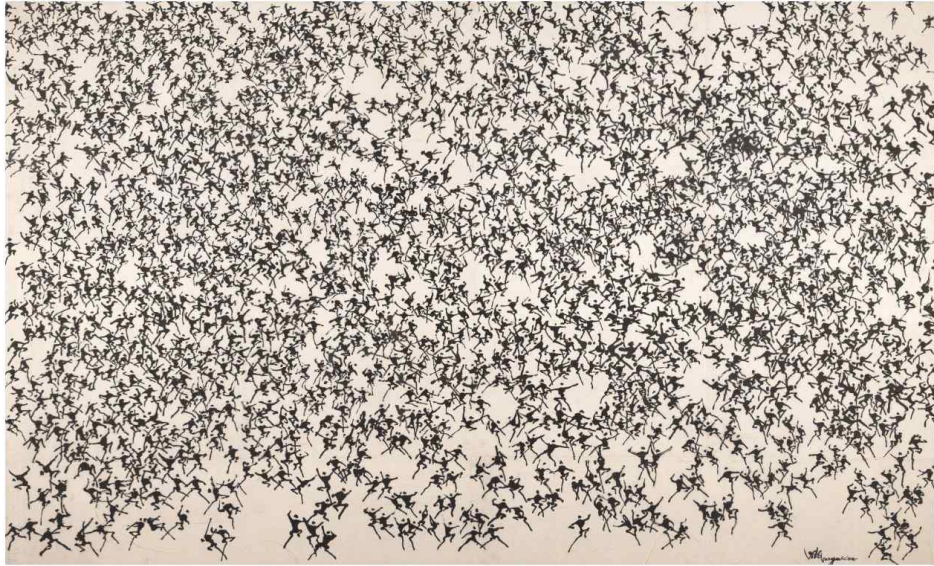
작가 연구에 선행해서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은 작가가 가지는 창작 과정과 예술 방향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이용노(1904~1989)는 전 생애에 걸쳐 전통미술의 현대화에 앞장섰던 작가이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고 이와 더불어 동, 서 문화의 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띄어가던 20세기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었고 이는 평생 동안 그의 작업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용노의 <군무>라는 제목의 작업은 연구자의 <걸어가다>의 설치작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었다. 그의 군상은 전체적인 흐름이 열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의 형상으로 구현된 작업이다. 그가 표현한 80년대의 분노와 환희의 비극적이던 군상은 점차 화해의 형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년에는 관조의 고백적 형식으로 보인다.

“ 격렬한 몸짓의 데모로서 군상이 등장한 것은 1980년에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 1980년대 작품 가운데서도 격렬한 집단적 항의 몸짓이 있는가 하면 환희의 몸짓으로 춤의 모양이 있다.” “ 군상은 인간의 상반된 감정인 분노와 환희로 나타내는 셈이다.” 136)

이용노의 군상에는 집단적인 힘의 분출로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저항의 몸짓과 동시에 환희의 동작이 있다. 저항의 몸짓으로 나타난 역동적인 인간 군상을 그린 그의 작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화해의 형상으로 등장하였다.

136) 오광수, 『80년대 이용노 군상전』, 이용노 미술관, 2004, p. 77.



[참고도판6]이응노, <군상>, 한지에 먹, 167x266cm , 1986.

<군상>[참고도판6]에서는 붓으로 서체를 쓰는듯하게, 인간의 형상을 수없이 나열해 놓은 전면 구도의 작품이 눈에 띈다. 특히 이응노의 군상은 한번의 붓 터치가 곧 한 사람이 되는 붓의 움직임이 수없이 반복 되어 나타난 것으로 한지의 한사람 한 사람은 여러 번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숨쉬는것처럼 보인다. 137)

<군상> [참고도판7]은 군상 시리즈 연작으로 한지에 먹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양화에서 보여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풍경을 그리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장대한 풍경을 단순화된 인물 그림으로만 구사하여 보여줌으로써 미술사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138) 군상 시리즈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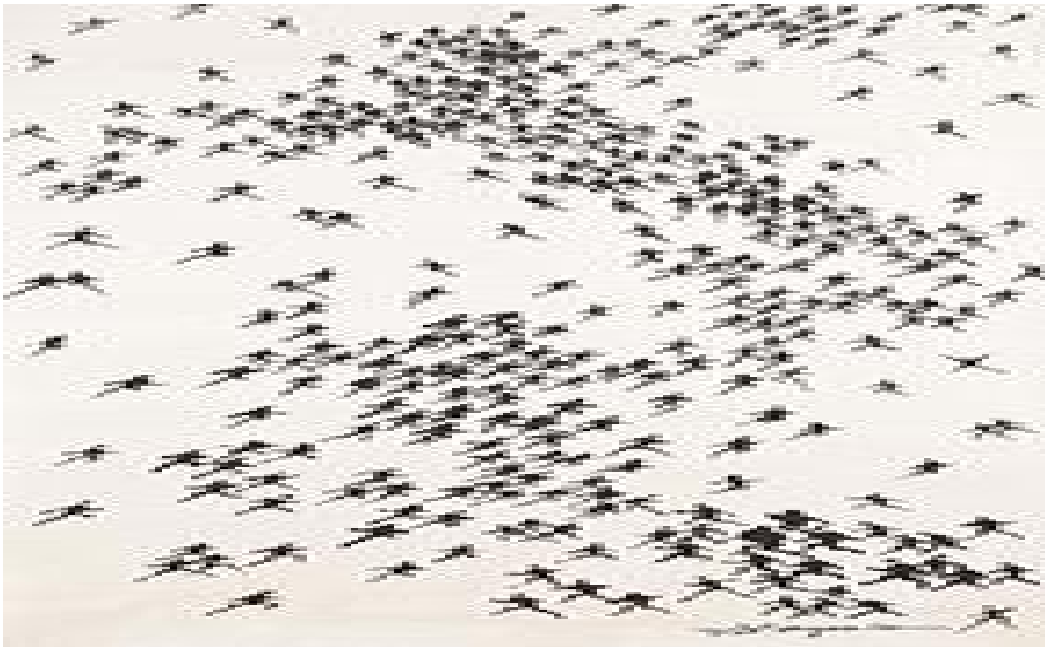
137) 대전고압미술문화재단,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 ,

<https://www.leeungnomuseum.or.kr/Menu.do?menuId=0102>, 2023.12, 12 접속.

138) 대전고압미술문화재단,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 ,

<https://www.leeungnomuseum.or.kr/Menu.do?menuId=0102>, 2023. 12, 12 접속.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는 군상으로 역동성을 나타낸 이응노의 작품은 뭉쳐있거나 옆에 붙어 있음으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힘을 보여준다. 즉,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39)



[참고도판] <군상>, 1988. 한지에 130×70cm, 1988, 떡.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움직임이 있는 군상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기인 격동의 혼란한 시대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화면에 등장한 작게 표현 되어진 사람의 형상 그리고 민중의 시선으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과 이응노의 작품에서 사람을 바라본 시선에서 살펴보자면, 이응노 군상을 통해서 평화를 표현하고자 연구자는 이응노의 작업에서 사람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군중의 이미

139) 홍숙영, 「스마트한 시대, 이응노의 재해석」, 전시도록, 이응노미술관, 2012. 09. 26.

지 또는 군상을 표현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의 작업에서 엿볼 수 있는 군상의 움직임은 유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응노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본질을 파악한 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것은 ‘자연에 순응하여 조화를 이룬다,’ 라는 도덕경의 25장에서 볼 수 있는 노자의 무위(無爲) 사상과 통한다.: “사람은 땅의 법칙에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에 따르고 하늘은 도의 법칙에 따르고, 도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¹⁴⁰⁾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도(道)는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뜻한다. 그것은 도덕경 63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노자의 무위이다.



[도판5] 人-함께 가다 가변설치, 종이 2021

140) 노자, 이민수 역, 『도덕경』, 혜원, 1994, p. 92.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작은 것들에 대한 관찰은 일상의 가치에 대해 깨달음을 준다. 이응노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두고 세상의 움직임과 변화를 해석하고 풀이한 주역의 64괘의 한자를 연구자만의 새로운 형상으로 표현한다.

4. 인간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자: 로버트 인디애나 (Robert Indiana)

로버트 인디애나의 작품에서는 문자가 조형 요소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자는 그 문자가 사용 되어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된 사전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인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미술사에서 문자는 의미 전달의 기능과 조형미를 배경으로 이미지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 문자가 하나의 독립적인 조형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급격한 사회적 변동과 전쟁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고발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등 휴머니스트적 입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자는 이러한 휴머니즘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제작하는데 효과적인 조형 요소였다. 화면에 조형미를 갖추면서도 작품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휴머니스트적 문자는 이러한 20세기 초 예술의 사상으로부터 미술사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집트 사람들은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활용하였으며, 이미지는 문자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려졌었다. 중세의 성서 사본도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지와 더불어 문자가 장식된 형태로 쓰여졌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책이나 종이 같은 것을 문자와 이미지로 나누어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15세기 후반에 인쇄기술의 발전의 영향으로 활판인쇄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되면서부터였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이 성경이나 대중소설 같은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예술에서는 더 이상 글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문자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매체가 된 것이다.¹⁴¹⁾

로버트 인디애나는 미국의 팝아트 작가로서 간결하면서도 문학적 상징이 함축된 기하학적 작품을 대부분 제작하였다. 상업디자인과 문자를 이용한 그래픽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여 그래픽 디자인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만들어 내었다. 그는 인디애나주 뉴캐슬에서 태어나 에딘버러대학과 런던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1961년경부터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로 표지판이나 회사의 상표와 같은 간결하고 명료한 기하학적인 추상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20세기 미국 추상 현실주의의 대표주자인 엘즈워스, 켈리 계통의 하드에지(hard-edge)파에 속하며, 화려하고 부드러운 구상형의 뉴욕 팝과는 구별된다.



[참고도판8] The Electric EAT
1964/2007



[참고도판9] The Red Diamond Die(1962)

‘EAT’[참고도판8], “DIE”[참고도판9]와 같은 단어를 표지판과 같이 간결

141) John Dixon Hunt(et al.), *Art, Word and Image*, London : Reaktion books, 2010, pp. 55-56.

한 패턴에 삽입하여 ‘먹는다’, ‘죽는다’ 라는 고유한 단어의 의미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본능적인 연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42) 그의 대표작 《LOVE》[참고도판10]는 문자라는 추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인디애나의 유명한 작품인 ‘LOVE’의 이 버전은 높이만 12피트나 되고 맨해튼 중심부에 거대한 야외 조각 작품으로 설치되어 있다. 두 줄로 ‘LOVE’라고 쓰인 대담한 그래픽으로 위쪽에는 ‘L’과 ‘O’, 아래쪽에는 ‘V’와 ‘E’를 배치하여 심플하게 두 줄로 쌓아놓았다. 글자의 외부에는 붉은색을 그리고 내부에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쉽게 읽을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배치를 만들어 내었다.



[참고도판10] ‘LOVE’ 1966

142) 오상일, 「20세기 후기 조각의 내러티브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 106.

그는 1960년대부터 이 ‘LOVE’라는 테마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캔버스에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다음에는 조각 형태로 점차 발전하여 작업하였다. 그는 크리스천사이언스와의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졌던 그 의미와 이러한 격자 형태에서 가능한 균형과 대칭성을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였다. 글자들을 쌓아 응집력 있는 블록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그는 밝은 색상과 선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현대 미니멀리스트의 일색적인 냉정과 침묵을 강조하였다. ‘LOVE’를 동사, 명사 그리고 명령어 등으로 해석하여도 그 의미에는 모호하지 않다. 단순한 구성과 쌓을 이론 이 단순함이 어울려 조각과 그래픽 디자인의 아이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디애나는 한마디로 1960년대의 정신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고 보편적인 메시지로, 명확하고 능률적인 그래픽으로 제시된 ‘LOVE’는 바로 읽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게 특별한 점이 되었다. ‘LOVE’라는 작품은 인디애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이 작품이 인디애나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중 하나이며 그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43)

‘LOVE 사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언제나 보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이는 바타이유 생각을 빌려 말하자면 ”유한하고도 불안정하며 때로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삶을 내려놓고 순간적으로나마 이상적인 세계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 그렇다.“144) 진정으로 사랑을 해 본 적이 있는 누구든 그 극한에 머무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삶에서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을 것이

143) 오상일, 「20세기 후기 조각의 내러티브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106.

144) Jonathan Weinberg, Speaking for Vice,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 1-14.

라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이 살아낸 역사만큼, 그리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채로운 사랑의 형태와 색깔이 담겨있다.¹⁴⁵⁾

무엇보다 인디애나의 간결해 보이는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점은 “사랑은 삶의 모든 양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팝이다,”라며 스스로의 예술세계를 규정하고 짓고 있는 작가의 말에서 엿볼수 있다. ¹⁴⁶⁾‘LOVE’ 연작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어린 인디애나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그의 기억 속에 남겨진 아버지가 일하시던 석유회사 ‘Phillips 66’의 주유소를 감싼 초록색과 빨강색, 그리고 푸른 하늘의 대비는 이후 인디애나의 작품 전반에 걸친 메인 색으로 자리 잡는다. [참고도판11], [참고도판12]



[참고도판11] phillips 66 간판



[참고도판12] phillips 66 간판

또한 교회의 벽 위에 쓰여 있었던 “신은 곧 사랑이다(God is Love)”라는 글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가 선택하고 있는 단어 ‘LOVE’는 인디애나 연구자의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역사이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보자

145) Barbara Haskell, “Interview with Gene Swenson, 1963” , Robert Indiana: Beyond Love, (Catalog)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Sep.26, 2013-Jan.5 ,2014, pp. 221-222.

146) Honnef Klaus, 『Pop Art』 , p. 44.

면 그에게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에 잠재되어 있는 문학성이나 역사성을 일상 속에서 소환하여 발견하고 시각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밖의 일부 작가들이 범하는 진부한 의식적인 행위와 상투는 그런 좌절의 아픈 흔적들이다. 인디애나 작품이 그 형식적, 시각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이다. 이는 미적 입장을 견지하고 완고하면서도 또한 자기 입장이 반영이 된 영감을 잘 조화시켰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47)

본 연구자의 작품 한자 ‘人’ 가진 조형적 특성 중 외형적 형태와 한자에 이미 내제되어있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글자와 사물 간 연관 유희로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의 작업은 동시대 디자인 및 예술 현장에서 전통적인 모양과 패턴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을 표현한 작가라 여겨지며 연구자 본인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패턴을 구축해 가고 있다.

147) Honnef Klaus, 『Pop Art』, p. 44.



[도판6] 人-함께 가다 30X50cm, 종이에 유화 2023

Ⅲ. 연구자 작품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조형적 특성 연구

본장에서는 연구자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작한 연구자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고, 연구자의 작업 주제인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과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성 및 표현 방법을 분석하여, 작가적 주제 의식과 방향성을 밝히는 고찰의 한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작업해온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내재한 주제적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특히 연구자의 작업에 나타난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은 한자의 한글의 ‘시옷(ㅅ)’과 ‘사람인(人)’, 알파벳의 ‘엑스(X)’와 같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한자의 사람인 ‘人’이 지닌 시각적인 조형성과 내재한 의미에 주목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다루는 모든 작품에는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은 한자의 ‘사람인(人)’이 표현의 중심이 된다. 한자의 ‘사람인(人) 형상을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의 다양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관계 지어 작품을 만들어 낸다. 다른 관점은 외형의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자의 작품과 연계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한다.

1. 군중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며 생각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셜미디어의 인기 트렌드에 맞추어 살아가기 바쁘다. 그들은 그러한 사회적 지향점에 따라가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 현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이 펼치는 생각, 관점, 유행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생활방식과 문화양식에 동화됨으로써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조차 타인에게 비견되는 자신의 독창적 개성과 지위를 망각한 채 역으로 타인을 모방하는 것을 자주 본다. 결국 모두가 모두를 모방하지만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침내 모두 같아지지만 또한 달라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역설에 다다르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한없이 고독해진다.

[도판7]의 작품 <군중>은 연구자가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를 직접 바라보며 느낀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인간의 신체 중 하체 부분만 표현된 작품은 군중을 형성하고 있는 절대 수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그들은 개별적인 주체적 사고와는 다르거나 또는 같더라도 그 구간을 넘어서는 행동하는 행하게 되는 심리로 선동에 의해 일치된 행동을 하게 하여 걸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작품은 개인의 생각은 사라져 버린 상반신이 없는 그저 선동에 의해 걸어가는 하반신만 있는 사람 즉 ‘사람인(人)’ 형상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군중’과 ‘인간관계’의 다양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판7] 이창희, <군중>, 브론즈, 2017, 가변설치.

또 다른 의미에서 작품의 외형은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군중행동을 강화시키고 야기시키는 자극의 방식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군중 대부분이 느끼는 공통된 동인(動因)으로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위급으로부터 달아나려 하는 강한 동인 같은 것이다.” 둘째, “동인과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동인에 쫓겨 하는 행동(화재 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여 달리는 등의 행동)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동인이 되는 경우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강화(強化)와 보수를 받는 것을 볼 때, 그들도 똑같이 하고 싶은 동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흥분은 형성되어 군중의 흥분이 극에 달하며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되는 것이다. 148)

148) [네이버 지식백과] 군중심리 [crowd mind, 群衆心理]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도판8] 이창희, <군중>, 브론즈, 2017, 가변설치.

본 연구자의 작품에 표현된 군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무명성(無名性): 군중 속에 일체화되어 자기의식을 잃는다.”
- ② “무책임성: 개개인의 행동이 불분명하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 ③ “무비판성: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과 억측으로 판단한다.”
- ④ “감정성: 동인과 반응의 상승작용으로 격앙된 흥분 때문에, 또는 책임성과 비판성의 결여 때문에 감정적이 된다.”
- ⑤ “암시성: 군중의 관심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낮다.”

⑥ “친근감: 무책임성·무명성·감정성 때문에 일체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149)

이처럼 [도판8] 작품에서 보여지 듯 여러 사람이 모여 걸어가는 ‘군중’ 즉 귀스타브 르봉 [Gustave Le Bon 1841.5.7 ~ 1931.12.13]¹⁵⁰⁾의 ‘군중심리’를 표현하는 대표적 작품이다. 브론즈(bronze)를 통해 재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다양한 크기의 모습과 컬러를 통해 ‘군중’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이는 개별 인간은(人) 브론즈(bronze) 청동 또는 청동 제품으로 제작된다. 작품에서 느낄 수 있듯이, 브론즈라는 재료의 물성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아우라(AURA)¹⁵¹⁾와 색채를 통하여 그날 직접 보았던 촛불집회의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자 했고, 작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들이 모여 걸어가는 현장을 표현했다. <군중>은 설치 환경에 따라 실제 거리를 걷고 있는 형태로도 설치하기도 하고, [도판 23], [도판 24], [도판 25] 자연석 돌 좌대 위에 소단위로 걷고 있는 모습으로도 설치된다.

소단위로 제작 설치된 작품은 군중의 일원인 개개인의 각자 지닌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로 개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 집단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되는 군중심리의 주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149) [네이버 지식백과] 군중심리 [crowd mind, 群衆心理]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50)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의 사상가·사회심리학자. 의사로 출발하였으나, 군중심리학 연구로 현대 사회심리학의 하나의 원류를 이루었다. 19세기 말의 상황을 ‘군중의 시대’라고 인식하였는데, 군중은 개인의 합리성을 상실하고 맹목적 목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 집합체라고 보았다. 귀스타브 르봉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51) [네이버 지식백과] 아우라 [Aura] 그리스어로 후광, 광채 등의 의미. “종교에서 예배 대상물의 장엄함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인체와 관련하여 언급할 때 아우라(Aura)는 신체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기나 은은한 향기 혹은 사람이나 물건을 에워싸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를 뜻한다.” (색채 용어 사전, 2007. 박연선, 국립국어원)



[도판9] 이창희, 걸어가다, 브론즈, 2017, 33x10x27cm.

군중 속의 개인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귀스타브 르봉은 개인이 조직화된 군중의 일원이 되면 문명의 계단에서 몇 단계는 더 내려간다고 보았다.

혼자였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도 군중 속에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좀 더 거칠게 행동하고 본능을 따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감하게 나서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며, 자신에게 좋지 않더라도 명백한 이익을 해지면서까지도 평소에는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듯 본래의 모습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¹⁵²⁾ 이렇듯 군중 속의 개개인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 연구자는 작품을 소단위로 묶어 개인과 군중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군중은 독립된 개개인보다 지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때로 감정과 행동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군중이 한 개인보다 더 우등할 수 있으며 열등해질 수도

152) 귀스타브 르 봉, 강주현 옮김, 「군중심리」, 현대지성, 2023,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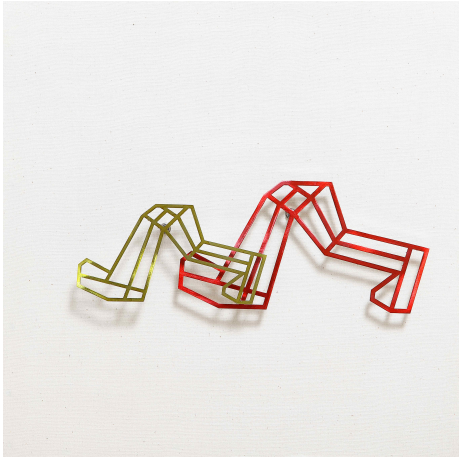
[도판10] 이창희, 걸어가다, 브론즈, 2017, 33x20x36cm.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 군중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153)

개인이 모여 군중이 되면 개인으로 있을 때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 한다. [도판 11] ~ [도판 18]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개인을 나열하여 한곳에 모은 형태로 표현했다. 부조로 제작된, <군중> [도판 11]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로 제작되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표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도장하고 크기와 형태를 다르게 하고, 반복적 나열을 통해 군중 속 서로 다른 다수의 사람을 표현하였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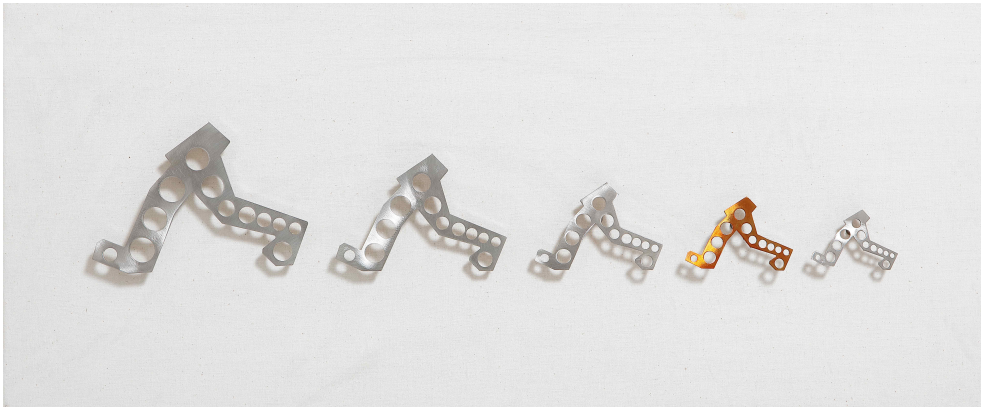
153) 귀스타브 르 봉, 위의 책,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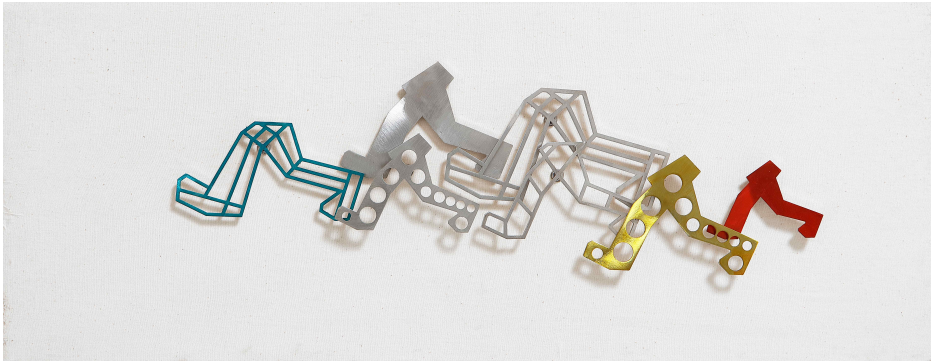
[도판11] 이창희, <균중> 브론즈,
2017, 50x50x5cm.



[도판12] 이창희, <균중> 브론즈,
2017, 100x100x5cm.



[도판13]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70x30x5cm



[도판14]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70x30x5cm.



[도판15]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50x60x5cm.



[도판16]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50x50x5cm.



[도판17]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30x30x5cm.



[도판18]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8,
60x50x5cm.

2. 함께 걸어가는 인간

사회심리학자인 클라크(Clark)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교환적 관계와 공유적 관계로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클라크에 따르면 “공유적 관계의 특징은 첫째,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각자가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둘째는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되돌려 주어야 하는 호혜성 원칙이 무시되고 초월된다.” “셋째는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별개의 독립적 개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 라고 지각하는 관계로 여긴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상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즐기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며 친밀감을 느끼고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기준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거나 슬플때도 같은 감정을 느끼며 자기의 경험이 된다.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 으로 구분하였는데 그것과 유사하다. 공유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가 인간의 삶 속에는 서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유적 인간관계보다는 많은 비중의 교환적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띄고 있다.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형태의 작품은 모두<걸어가다>라는 제목을 쓴다. ‘함께 걸어가다’ 라는 말은 목적지를 향하여 발로 걸어서 나아가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어떤 길을 지나가다. (비유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계속해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를 레이저 컷팅하여 서로 중첩되게 쌓아 볼트로 고정하였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걸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현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021년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감독 김성호는 연구자의 작품을 “인간의 모티브를 단순화시켜 ‘걷는 사람’의 외형적 모습을 한 조각, 한자의 ‘사람인(人)’과 한글의 ‘시옷(ㅅ)’이 만난 절묘한 형상”이라고 말하였다. [도판 25] 참고



[도판19]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7, 69x20x25cm.

조각의 기초적인 조형 요소를 그 자체로 드러내었고, 작품은 ‘입방체의 연결’으로 이루어졌다. 사람 인체의 다리를 연상케 만드는 두 개의 입방체들의 연결인 시옷(ㅅ)의 형상으로 조형화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미니멀아트의 기수인 모리스(R. Morris)가 [도판 19] 선보였던 입방체와 입방체의 연결(L

자 형 빔)의 제작 방식과 설치 방식과 (L, —, ∨, ∧)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와 달리 연구자는 “모리스가 선보였던 입방체의 배열과 연결의 방식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인식의 대상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154)



[도판20] 이창희, <걸어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16, 250x560x250cm.

다른 관점은 외형의 시각적인 형상성을 묘사한 표현이지만, ‘人’의 경우 글자 자체에 연구자가 추구해온 ‘사람의 본성’이란 전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자 작품과 연계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이란 현대사회의 동시대적 감성을 분석하고 연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을 살아

154) 이창희 작가노트 발췌.

가며 우리는 유기적인 소통을 근간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와 많은 소통을 하며 살아야만 한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교류해야 하는 존재로 공동사회(共同社會)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도판21] 이창희, <人-함께 가다>, 종이, 2021, 가변설치.

한자 ‘사람인(人)’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민간 어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은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 ‘亻’을 묘사한 상형문자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사람이 서로 받친다는 민간 어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도 꽤 퍼져 있다. 한자의 ‘人’은 사람을 뜻한다. 이 글자는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⁵⁾

사람이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우리가 생존하고 행복하고자 하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함께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관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⁶⁾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며 관계맺는 모습을 보고 느끼며 ‘인간관계’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게 되었다.



[도판22]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가변설치.

155) 서상택,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훈련 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p. 58.

156) 서상택, 위의 논문, pp. 56-87.



[도판23]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240x120x240cm.



[도판24]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1, 240x120x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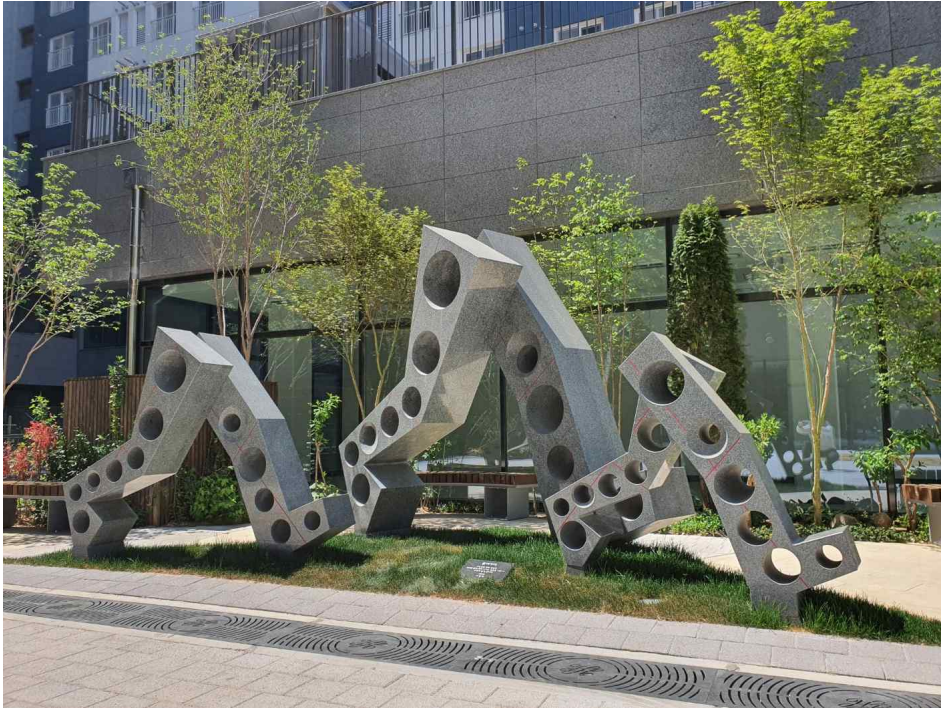
[도판25] 이창희, <스-함께 가다>, 스틸, 2021, 240x120x240cm.

한글의 시옷 ‘스’ 한자의 사람 ‘人’ 등글자가 지닌 시각적 조형성과 상징성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의식이 서로의 사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상호관계성을 연구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도판26] 이창희, <人-함께 가다>, 스테인레스 스틸, 2022, 가변설치.

그간 해오던 작업의 연장선에서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형태적 변화와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작업을 하고자 고민하였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위로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통하여 가쁨과 고통,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연구하며 또한 인간과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하려 했다. 작업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글자를 시각 예술의 새로운 표현 도구로 활용하는 것, 작품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글자 모양만을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조형성과 글자의 의미를 동시에 구현하며 작품의 확장성을 다 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도판27] 이창희, <人-함께 가다>, 고흥석, 2022, 420x220x260cm.

3. 관계

수많은 군중 속에 싸여 있어도 외로울까?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 스먼(David Riesman, 1909~2002)이 1950년에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대중사회 속에서 ‘내면의 고립감’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다. 흔히 겉으로 화려한 사교성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외롭고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그런 군중의 고독함으로부터 출발한다.



[도판28]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특수도장, 2023, 420x199x159cm.

한자 ‘사람 인(人)’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란 어원도

갖고 있다. 간혹 사람이 서 있는 옆모습 ‘1’의 상형문자로도 표현된다. 결국 ‘인간관계’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음’의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일 것이다.”

사회에 대한 정의를 ‘공통된 문화, 제도 등을 지닌 개인의 집합’이라고도 한다. 결국 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며, 서로의 소통과 교감의 결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구성체인 셈이다. 하지만 나와 타자 간에 무관심이 우선된다면 ‘공통된 제도적 약속’은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한다. 그 결과의

끝에선 ‘고독의 늪에 빠진 일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고독이 팽배한 거대 도시의 문제점을 ‘사람들의 일상 속을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의 거울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찾는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인간관계’가 더 절실하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디지털 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 선두 그룹이다. 급격한 성장 주의를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에 잘 대처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현실이다.

본 연구자의 작품으로 말하는 소통의 방식은 다양성을 우선한다. 다소 냉철하면서도 직선적이며, 일방적이면서 동시에 쌍방향의 상호작용을 표현한다. 또한 역동성과 절제미도 함께 추구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가 지닌 금속성에 다양한 색감의 우레탄 도장은 삶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대변한다. 신체 중 오로지 두 발에 집중한 것도 쉽 없이 전진하는 현대인의 속성을 재치 있게 포착한 결과이다. 여행할 때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나 시름의 감정을 ‘여정(旅情)’이라고 한다. 인생도 일종의 여행이다. 그러니 뜻하지

얇은 걱정거리나 갑작스러운 외로움도 느끼기 마련이다. 그 인생의 여정(旅程)을 무던하게 걷고 걷는 것이 삶의 일상이다. 걷는다는 행위는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도 하다. 무심하게 걷는 여행에서 동행하거나 마주 오는 또 다른 일행을 만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듯, 반복되는 걸음과 걸음은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과 끝이 될 수도 있다.



[도판29]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특수도장, 2023,
130x40x120cm.



[도판30]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특수도장, 2023,
190x1300x230cm.



[도판31]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실, 우레탄 특수도장, 2023, 가변설치.

혹 홀로 외로움을 견디기도 하고, 서로 기대며 의지해 극복한다. 서로 겹친 작품들의 연출이나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할 때 융합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타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은 동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말이다. 모든 고독과 외로움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의 비책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구자의 ‘걷는 사람’ 시리즈

즈 작품들 역시 인간관계, 사회적 연결 등 거시적인 담론을 기반에 두고 있지만, 그 이전에 ‘관심’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의 외형적 형상을 한자 ‘사람인(人)’의 모티브를 매개로 한 이유이기도 하겠다. 상호간의 따뜻한 관심이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의 해법이기 때문이다.



[도판32]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특수도장, 2023, 120x120x240cm.



[도판33] 이창희, <人 · 관계>,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특수도장, 2023,
120x120x240cm.



[도판34] 이창희, 전시전경, 2023.



[도판35] 이창희, 전시전경, 2023.

V. 결론

본 논문은 연구자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상징으로서 한자의 사람(人)의 조형성 및 표현 방법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작품 연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품의 표현 방법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의 모습 ‘나’와 ‘타인’, 또는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보고 연구자의 ‘걷는 사람 형상’ 작품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II 장에서는 한자 ‘人’의 조형적 요소와 내포한 의미를 통해 현대사회 속 인간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특성으로 ‘인간관계’의 의미를 알아본다. 인간관계는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그 관계에 속하는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고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 복잡하며 오묘하여 인간관계는 삶의 퍼즐과 같이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가장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특성들 가운데는 자비, 친절, 배려, 관심, 협동, 그리고 사랑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전하게 된다.

첨단 기계 문명 사회의 역기능과 현대사회의 급성장한 산업화의 결과로 비인간화되고 소외되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들을 박탈당하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됨으로써 인간은 대상화되고, 기계화되고, 그리고 수단화되어진다.¹⁵⁷⁾

즉,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과 그 관계의 수준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한자로 人(사람인), 間(사이 간)을 사용하며 서로 기대어 사회를 이루고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설명된다. 한자의 뜻처럼 인간이라는 단어는 관계 형성이라는 의미를 이미 글자 속에 내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안전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왔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존재로 살아왔으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며 서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人(사람인) 이 가진 의미와 가치들을 이해하고 고찰하며, 심미적인 수단을 통하여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논의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II장에서 논하였듯 불안은 실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불안으로 바뀌기도 하며,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여 보고 에히리 프롬의 이론에 의거하여 현대인의 소외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모든 주체는 근본적으로 항상 불안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게 인식하며 존중함으로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각성한 주체적 자아는 외부와 타자와의 공감으로 내면을 회복하며 소통으로 소외 또한 극복할 수 있다.

157) Cooper, A. M,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1998). pp, 53-74.

위의 연구를 토대로 III장에서는 선행 작가 제기 및 예비적 논의를 하였다. 즉, 넓은 형태에서 인간의 형상과 사회라는 주제로 작업을 한 작가들 중심으로 선행 작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 줄리안오피(Julian Opie), 고암 이응노,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의 작품을 살펴보며 그들의 작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려 했는지 연구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와 개념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 연구자 연구자의 연구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에 대해 이해해 보고 타인과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볼 수 있었다.

인간은 외부와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건전한 주체로써 사회와 지속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듯 현대의 주체는 자신의 경험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공생하는 삶을 직면하게 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생각과 제작 과정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자의 작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시대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관계 맺기’란 무엇인가? 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능동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인간 관계의 심리학』.서울: 학지사. 2017
- 김종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사상과 자기 이해』, 엠-에드, 2002.
-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 노자, 이민수(역) 『도덕경』. 해원. 1994
- 디트리히 본회퍼, 『역사·소외·저항·혁명』, 편집부 역, 형성사, 1982.
- 라이너 폰크 외.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박규호 역. 영림카디널, 2003,
- 박홍수. 『중국언어와 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 베로니크 와이싱어. 『자코메티-도전적인 조각상』. 시공사, 2010
- 샤를 르 블랑, 이창실 옮김, 『키에르케고르』, 동문사, 2004,
- 송운석. 『인간관계의 이해』. 학현사. 2003.
- 쇠얀 키에르케고어, 임춘갑 역, 『불안의 개념』, 다산글방, 2007.
- 쇠얀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세창클레식, 세창출판사, 2020.
- 아르네 그웬,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 하선규 역, 도서출판 b, 2016.
- 양창삼,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경문사. 1997.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삶이냐』, 고영복 역, 동서문화사, 2008.
- 에리히 프롬, 『건전한 사회』, 김병익 역, 범우사, 1975,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원창화 역, 홍신문화사, 1988.
- 요시미 순야, (역)최종길, 『포스트 전후 사회』, 어문학사, 2013.
- 이동귀,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21세기북스, 2016.

- 이성록. 『사회적 인간의 본성.』 다빈치하우스-미디어 숲. 2006.
- 이태연. 『인간관계 심리학』. 도서출판 신정. 2014
- 임근혜, 『창조의 제국 영국 현대 미술의 센세이션』. 지안 출판사, 2009.
- 임영제 외4인, 『21세기 디지털시대 인간관계의 이해』. 파주:法文社, 2007.
-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6
- 정재승. 『과학콘서트』. 도서출판 동아시아, 2001
-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철학과 현실사. 1995.
- 진중권, 『미학 오딧세이 1』, 휴머니스트, 서울, 2003.
- 최애경.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인간관계의 이해와 실천』. 청람. 2006.
- 키에르케고어, 쇠렌, 임규정 · 송은재 역 『주체적으로 되는 것』,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역, 문학과 지성사, 2017,
-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 한스-게오르크 호이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비즈니스북스. 2018
- 할 포스터, 배수희, 신정훈(역) 『19세기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12.
- Erich Fromm.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 삼성출판사 2016.
- Gugtave Le Bon, 강주현(역), 『군중심리』, 현대지성, 2021.
- Kierkegaard, 박환덕 역, 『죽음에 이르는 병』, 서울:범우사, 1995.
- Kierkegaard, 임규정역, 『불안의 개념』, 서울: 한길사, 2002.

<국외서적>

Barbara Haskell, “Interview with Gene Swenson, 1963” , Robert Indiana:

Beyond Love, (Catalog) New York: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Sep. 26, 2013-Jan.5 , 2014.

Claes Oldenburg. 『Looking at Giacometti』 . Owl Books, 1977.

Cooper,A. M.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sorders of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53-74.

David sylverster, Looking at Giacometti, Owl Books, 1977

David sylverster, Coosje Van Bruggen. 『Larged-Scale Projects』 , Monacellipress. 1994.

Distributed Art Publishers. 2002

Hunt, Morton. 『Profiles of Social Research The Scientific Study of Human Interaction.』 , Russell Sage Foundation, 1986.

Jonathan Weinberg, Speaking for Vice, Yale University Press, 1993.

John Dixon Hunt(et al.), *Art, Word and Image, London* : Reaktion books, 2010,

Simon Salama-Caro (et al.), 『Robert Indiana』 , New York: Rizzoli, 2006.

<학술문헌>

권석환. 「기운생동(氣運生動)과 그 예술 정신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15권 0호. 1997.

김영호, 이호익 「풍경의 질서로서 글씨, 순수예술이 되는 지점」, 동서미술 문화학회, 2012.

김용식, 「에리히 프롬 사랑의 교육적 의미 『소유냐 존재냐』를 중심으

- 로」 『교육논총』 제36권 2호, (2016).
- 박병준, 「불안과 철학상담- 불행을 넘어서는 ‘치유의 행복학’의 관점에
서-」 철학논집 제46집, (2016).
- 심준섭,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1929~)이론과 소비문화의 관점을
통한 미술비평』, 한국기초조형학회, vol8, no.2, 2007,
- 오상일. 「20세기 후기 조각의 내러티브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
문, 2005.
- 이노우에 히데루, 박선환, 「관계와 인간의 삶」, 카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31권 11호, 2006.
- 이정은, 이현수, 「공황장애 환자와 비공황 불안장애 환자의 심리적 특성 비
교-MMPI와 로르샤하 반응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8권2
호, 2009.
- 정경숙. 「1950년대 이후 한중일 문자예술비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2.
- 홍승표 「동양사상과 새로운 소외론,」. 사회사상과 문화 23권 0호 , 동양
사회사상학회, 2011.

<간행물>

- 국제갤러리, ‘Julian Opie 개인전’ 서문, 2021. 10. 7.-2021. 11. 28.
- 김영호, 이호억 「풍경의 질서로서 글씨, 순수예술이 되는 지점」. 동서미술문
화학회. 2012.
-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Julian Opie 개인전도록, 2021. 10. 7 - 2021. 11.
28.
- 오광수, 『80년대 이응노 군상전』, 이응노 미술관, 2004.

홍숙영, 「스마트한 시대, 이응노의 재해석」, 전시도록, 이응노미술관, 2012.
John Dixon Hunt(et al.), *Art, Word and Image, London* : Reaktion books, 2010.
Søren Kierkegaard, *Die Krankheit zum Tode*. Rowohlt, München, 1969.
Rainer Funk, 내가 에리히 프롬에게 배운 것들 (Erich Fromms kleine Lebensschule) ,서울 : 갤리온, 2008.

<웹>

진송, 에른스트 카시러 I : 인간론과 문화철학(An Essay on Man),
<https://m.blog.naver.com/yicheongho/223355584033>, 2024, 02, 16.
석담 김한희 , 「설문해자.서(說文解字·敍)」, (김석담의 맑은샘 논어.),
<https://blog.naver.com/hanhyi/222841207110>, 2022. 08. 06.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문화와 한자, 2013.
락이망우, 「근본한자290」, (웃음이 넘치는 글방),
<https://blog.naver.com/havfun48/222278601130>, 2021. 03. 17.
이수완, ” 이수완의 공공미술 산책: 줄리안오피<군중>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4081713105790710>, 2020, 04. 09.
아트앤스터디 채널. 인간의 욕망과 예술 형식의 관계 - 정윤수(문화평론가).
<https://www.youtube.com/watch?v=NFZ0E3MjrFQ>.
Haim , 「인간관계론:인간관계의 개념, 의미,중요성 정리」, (엄마의 공부시간),
<https://blog.naver.com/hippystyle/222755043937>, 2022, 06, 09.

ABSTRACT

Study of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Form of Chinese Character ‘person’ (人)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Lee Changhee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works created by the researcher from 2016 to 2023. The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present the thematic consciousness and direction of the researcher’s work by analyzing the content related to ‘relationships in contemporary society,’ as well as the forms and methods of expression evident in the works. This research approaches the artworks by focusing on the simplification of human motifs to visually maximize the symbolism inherent in the themes of the pieces. In particular, the external form of the ‘walking person’ depicted in the works allows for various interpretations, such as the Chinese character for ‘person’ (人), the Korean consonant ‘siot’ (ㄸ), and the English alphabet

'X'. Among these, the study pays close attention to the visual plasticity of the Chinese character 'person' (人) and the meaning inherent in its form,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Another perspective is the depiction of the visual form of the character 'person' (人), which inherently contains the traditional meaning of 'human nature' that the researcher has pursued. Furthermore, by linking the researcher's works with the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sensibility of 'the encounters and communication of people living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aims for a more effective approach.

In today's modern society, we are placed in an environment where we must live based on organic communication with 'ourselves,' 'others,' or 'society.' Humans are 'social beings' who interact with others within a community and cannot live in isolation, recovering their self-esteem through communication with others. However, as modern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diversified and individualized, the opportunit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ntact between individuals and other members of society are deemed important. In this context, people continuously pursue fundamental needs to form relationships with different others and engage in various communications within those relationships. Furthermore, mutual exchanges in human relationships raise important issues regarding how individuals' thoughts and actions can influence one another.

In particular, the modes of communication with others in modern society

have transformed from traditional concepts, exhibiting a tendency toward greater objectification or individual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se contemporary changes are represented through the researcher's 'walking person' artworks, examining the spatial composition, imagery, and methods of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to explore how anxious and alienated modern individuals can be expressed through the works.